

柔道

vol.125

judo.sports.or.kr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 대한유도회 회보 2020 봄·여름호



특별 인터뷰

이영 스페인 유도회 명예경기위원장

이종세의 인물열전

여규태 한국유도고단자회 회장

국제대회 소식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

2020 파리 그랜드슬램

2020 뒤셀도르프 그랜드슬램

유도 지방화 시대(9)

경기도유도회

한국 유도 뿌리를 찾아서

국제 무대 중심에 서다



124

CONTENTS

2020 SPRING & SUMMER
Korea Judo Association
Vol.125



표지설명
김진도 대한유도회 회장이
2019년도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조구함(수원시청)에게
시상하고 있다.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 통권 125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06 기획
06 코로나19 확산세 선수들의 실전감각은 어쩌나
08 코로나19에 온정 보인 한국 유도계

발행인 겸 편집인
김진도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대한유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1층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02 특별인터뷰
이영 스페인 유도회 명예경기위원장

06 기획
06 코로나19 확산세 선수들의 실전감각은 어쩌나
08 코로나19에 온정 보인 한국 유도계

12 국제 대회

12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
18 2020 파리 그랜드슬램
22 2020 뒤셀도르프 그랜드슬램

26 화제의 인물
2020 유도인의 밤 최우수선수상 조구함

30 현장
2020 유도인의 밤

34 인터뷰
34 유도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김현태
36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최승엽
38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임희대

40 꿈나무를 찾아서
'삼동이' 전민성-전민현-전민균

42 유도 지방화 시대(9)
42 인터뷰-경기도유도회 서정복 회장
44 학교 탐방-경민중·고 유도부
46 유도관 탐방-의정부시 유도회관

48 이종세의 인물열전
여규태 한국유도고단자회 회장

52 한국 유도 뿌리를 찾아서(끝)
국제 무대 중심에 서다

54 유도 뉴스 및 유도인 동정

58 유도 기록실
60 2020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 명단
63 2020년도 제2차 정기승단자 명단

이 영 스페인 유도회 명예경기위원장은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유도 대부’란 칭호를 들어왔다. ‘대부’란 단어 한마디에는 1971년에 스페인으로 건너와 거의 반세기 동안 유도를 보급하고 가르치며 살아온 그의 삶이 녹아 있다. 그래도 그는 ‘대부’보다 ‘잡초’란 말을 더 좋아한다. 한국 유도인이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거친 풍파를 헤쳐 가며 유도와 함께 잘 살아왔다는 의미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현대 스페인 유도에는 그의 기술과 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유도에 대한 현지 언론의 평가가 그렇다고 한다. 유도에 관해 1970년 이전 스페인 스타일이 있었다면 1970년 이후에는 또 다른 스타일이 지배했다. 그것이 이영 스타일이란 이야기다. 한국 유도인이 유럽 주요 국가중 하나인 스페인 유도의 현대 스타일을 만들어낸 주역으로 존재한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다. 이영 위원장은 스페인 대표팀 감독, 마드리드 국립체육대학 교수, 스페인 유도회 기술위원장, 경기위원장장을 역임한 뒤 현재 명예경기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계간 <柔道>가 이번 호 특별인터뷰의 주인공으로 이영 위원장을 만난 이유가 되겠다. 다음은 이영 위원장과 나눈 대화다.

■ 스페인에서 반세기를 살았다. 그렇게 오래 머물 계획을 갖고 한국을 떠났나.

A 유도회가 파견한 코치로 스페인에 갔다. 나도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다. 처음에는 몇 년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다.

■ 순회코치로 재직하다가 어떻게 대학 교수로 변신했나.

A 스페인 대표팀 코치로 일할 때 스페인 유도회 기술위원장이 마드리드 국립체육



“나더러 스페인 유도의 대부라고 하는데 잡초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한국에서 1만 km를 날아와서 씨를 퍼트렸으니 말이야. 잡초가 생명력이 있잖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유도가 필수 과목이었는데 그 교수가 나를 조교처럼 일을 시켰다. 교수가 출장이라도 가면 나보고 알아서 수업을 진행하라고 했다. 당시에 스페인어를 잘 하지 못해서 칠판에 강의 제목만 써놓고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곤 했다. 그렇게 조금씩 기술지도를 하다보니까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몇 개월 후에 정식 조교수 발령을 받았다. 교수로 9년간 재직했다.

■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서 정교수로 임명되었는데, 파격적인 승격이라고 봐도 되나.

A 1971년에 조교수 발령을 받았고, 1979년에 정교수로 승격되었다. 열심히 일한 걸 인정받았지만 운도 따랐다. 당시 우리 정교수가 큰 사업을 벌여서 멕시코로 떠났다. 스페인의 대학에선 보직이 비게 되면 새로 뽑지 않고 밑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서 그 자리를 채운다. 그래서 내가 마드리드 국립체육대학 정교수가 되었다. 굉장히 빠른 편

이었다.

■ 스페인 대표팀 감독은 왜 스스로 그만두었나.

A 대표팀 감독으로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준비를 모두 마쳐놓았는데 갑자기 스페인 유도회에서 나보고 몬트리올에 갈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외국인은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밀었다. 그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에는 내가 모두 출전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사정을 알아보았더니 거짓말이었다. 다른 사람을 보내기 위해 나를 뺀 것이다. 가슴이 아팠다. 사표를 냈다.

■ 나중에 스페인 유도회가 다시 감독으로 발탁했다고 들었다.

A 내가 처신을 잘 했는지, 실력으로 말했는지 결국 스페인 유도회가 나를 밀어줬다. 스페인 대표팀을 맡고 나서 스페인 유도를 현대화시킨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했다. 1984년 LA올림픽을 앞두고 나보고 다시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올림픽에는 누가 감독으로 가느냐’고 다시 물었다. 일본인 코치를 보낸다고 해서 나는 대표팀을 맡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유도회가 ‘당신을 감독으로 보내겠다’고 부탁해서 수락했다. 내가 스페인 대표팀을 6개월 정도 지도하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유럽선수권대회에서 스페인이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나도 의욕을 갖고 제2의 출발을 했다. 나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졌다. LA올림픽 끝나고 유도회 내분이 일어나서 한쪽 편을 들 수 없어서 그만두었다.

■ 스페인 대표팀 감독으로 재직하던 시절 어떤 성과를 남겼나.

A 내가 대표팀을 맡고나서 스페인 사람들 이 나를 ‘대부’라고 불렀다. 이곳 유도지도자들이 스페인 유도를 말할 때 1970년 이



스페인에
‘이영 스타일’이 식한
유도 대부

이영 스페인 유도회 명예경기위원장

전엔 스페인 스타일이 존재했다면, 1970년 이후엔 이영 스타일이 있다고 한다. 스페인 유도가 그렇게 변했다. 내가 유도 기술을 현대화시켰다. 처음 스페인에 갔을 때만해도 유도 선수들을 보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았다. 까나리아 씨름을 하다가 유도로 전향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씨름선수이자 유도선수가 아니었다. 유도 특유의 부드러움이 나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체력훈련을 강하게 실시하고 부딪히기(우치코미)를 철저히 시켰다. 스페인 유도에 혁명이 일어났다. 유도 본산인 일본 강도관에서 ‘스페인에 가면 한국인이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고, 한국인이 유도계를 장악하고 있다’란 말이 나돌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 유도인이 나에게 전한 말이다. ‘스페인은 왜 한국에게 빼앗겼느냐’고 자기들끼리 말한다고 한다.

▣ 스페인 유도회가 여러 차례 위원장님을 불러들였다.

A 대표팀 감독으로만 8년을 보냈다. 감독을 그만두고 2007년인가. 새로 바뀐 유도회 회장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엔 기술위원장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코치, 감독을 관리 감독하는 테크니컬 디렉터였다. 10

명이나 되는 대표팀 코칭스태프를 휘하에 두고 일했다. 런던올림픽을 치르고 나선 경기위원회장을 맡아 2016 리우올림픽까지 마쳤다. 지금은 명예 기술위원장이다.

▣ 지금도 마드리드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가.

A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직후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나서 한동안 학교일에 전념하다가 도장을 열었다. 1977년에 첫 도장을 세웠고, 1983년에 두 번째 도장 문을 열었다. ‘짐나지움 리’ 1, 2다. ‘유도대표팀 감독이 마드리드에 도장을 열었다’란 소문이 나서 반응이 대단했다. 수련생이 많을 땐 두 개 도장 합하면 750명이 되었다. 거기서 경제적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 스페인에 유도 인구는 얼마나 되고, 도장은 몇 개나 있다.

A 스페인은 유도가 성행하는 나라다. 프랑스 유도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고, 스페인은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드리드

인구가 500만 명쯤 된다. 도장이 200개나 된다. 도장이 기업이다. 여기에선 유도장을

운영하면 대우를 받는다.

▣ 스페인 대표팀 감독으로서 혁혁한 성과

를 남겼고, 도장 경영자로서도 성공한 삶을 산 것 같다. 그 비결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A 유럽에 한국 유도 기반을 닦은 분은 독일의 한호산 선배였다. 1963년에 독일에 가서 독일 감독이 되어 독일을 유도강국으로 키운 분이다. 나는 스페인에서 그 분을 그리며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다. 코치나 감독을 기술 감독으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감독은 철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겸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선수든 학생이든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부모의 사랑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심리를 모르고, 철학을 모르고, 교육철학을 모르고,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면 실패하기 쉽다.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나도 사랑 받아야 한다.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며, 계산도 먼저 하고 해야 한다.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

▣ 유럽에서 바라본 한국 유도는 어떤가.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나.

A 과거에는 배고픈 사람이 유도했다. 지금은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 배가 부르면 독한 훈련을 이겨낼 정신력이 모자란다. 배고픈데서 나오는 힘이 있다.

중3때 유도와 인연

육군·철도청 선수로 활약

결국 이야기는 과거로 연결되었다. 이영 위원장이 유도를 배웠던 그때 그시절 이야기다. 이영 위원장은 중학교 3학년 때 유도와 인연을 맺었다. 먼저 복싱과 태권도를 배웠으나 그가 마음이 가서 정착한 곳은 유도장이었다. 1960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그는 중앙대 유도부 창단 멤버로 활약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육군, 철도청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 어떻게 유도를 배우게 됐나.

A 서울 용산에서 자랐는데 거기가 험한 동네여서 뭐라도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복싱을 시작했다. 그러나 복싱체육관이 멀어서 겨울철에 다니기 힘들었다. 3개월 만에 포기하고 태권도장에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유도를 배우라고 권유하셨다. 그래서 유도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보다 작은 애들이 없었던 것 같다. 그때 참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있다.

▣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선수로 뛰었나.

A 중앙대에 입학해서 보니 유도부가 없었다. 마침 1년 선배가 유도부를 만들자고 해서 뜻을 모았다. 당시 대회에 나가면 한양대, 동국대, 대구대, 동아대하고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 현역 때 대표선수 선발전에 출전했다고 들었다. 올림픽 출전 꿈을 이뤘나.

A 1964년 도쿄올림픽 대표선수 선발전에 출전했다. 거기서 4명이 올라가는 결승무대까지 진출했다. 김병식 유영도 박정삼과

대표선수를 마지막까지 닦았는데 박정삼이 1등 해서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다. 나로선 아쉬웠지만 그것이 인연이 되어 육군에 입대해서 유도부에서 복무할 수 있었다.

▣ 해외 진출은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나.

A 전역후 철도청 선수로 뛰다가 무릎을 크게 다쳤다. 부상후에 기량이 내리막길에 들어가서 은퇴를 결심하고 미국 유학을 생각했다. 유학을 준비하던 중 유도회가 서독에 파견할 코치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합격했다. 하지만 독일 유도회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 나 대신 일본인 코치를 받았다. 다시 기다려야 했다. 마침 대한유도회가 스페인 유도회 요청에 따라 나를 순회코치로 파견하게 되었다.

유도는 비즈니스

작은 도장도 기업 마인드 가져야

1971년 2월. 서른 줄에 들어선 한국인 유도코치 이영은 스페인으로 떠났다. 2020년은 그가 스페인에 한국 유도의 씨앗을 뿌린

지 50년이 되는 해다. 그가 스페인에 전수한 유도의 기술과 정신은 스페인 전역에 전파되어 큰 숲을 이뤘다.

이제 그는 고국 한국을 돌아보며 한국 유도의 미래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당부를 내놓았다. 그의 주문은 유도 저변의 확대를 위한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는 “선수는 백 명 중에 한 명, 국제선수는 천 명 중에 한 명, 세계적인 선수는 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온다”라고 비유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사람에 달려있다. 유도는 사업이고 장사다. 조그만 도장이라도 기업이다”라고 비즈니스 차원의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 유럽에서 아이들 잘 가르친다. 도장을 키우려면 경영자가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별짓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 앞에서 접시를 들고 요술이라도 해야 한다”고 유럽쪽 사례를 들어주며 “한국 유도도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구리 속에서 금을 건진다는 생각으로 기업식 유도를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코로나19 확산세 선수들의 실전감각은 어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유도 이벤트가 이른바 ‘올 스톱’ 됐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됐던 2020도쿄올림픽 준비에 한창이겠지만, 지금은 선수촌 입촌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 제대로 몸을 만드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에 유도 일정 올스톱

당초 예정됐던 국제대회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랭킹포인트가 걸린 국제대회는 전면 중단됐다. 애초 국제유도연맹(IJF)은 “유도 가족들을 보호하고, 세계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

을 내려야 하는 불행한 입장에 처했다. 유도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고 올림픽 예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국제대회 취소 이유를 전했다. 당시 대한민국 유도대표팀은 국제유도연맹의 이같은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일부

체급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안정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탓에 올림픽 랭킹포인트 획득을 위해선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그랜드 슬램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개최국인 러시아의 보건당국과 체육국은 ‘러시아 입국 2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이력이 있는 참가자들의

격리 불가피’ 방침을 고수해 자칫하면 이 대회 출전이 무산될 뻔했는데, 아예 도쿄올림픽 자체가 연기되면서 걱정을 덜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6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헝가리 그랜드슬램대회 개최도 미뤄졌고, 그 이후의 국제대회 일정도 전혀 잡히지 않아 선수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각자 소속팀으로 이동해 최소한의 훈련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도자는 “선수들도 지도자들도 모두 답답한 상황”이라며 “선수들이 실전 감각을 찾기도 어렵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지길 바랄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올림픽 연기에도 흔들림 없는 간판스타들

남자 100kg이하급 국가대표이자 이 체급 세계 랭킹 1위 조구함(수원시청)을 통해 상황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진천선수촌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기존의 운동량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자체적으로 외출과 외박, 외부 훈련 등을 자제하고 있기에 소속팀 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선수촌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소화할 때 와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선수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컨디션을 관리하고 있다. 조구함은 “컨디션에는 큰 문제가 없다. 아픈 곳도 없고 몸 상태도 좋다”라며 “당장 다음 주에 대회가 열린다고 해도 문제없을 정도의 몸 상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유도 팬들을 안심시켰다. 덧붙여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상황이니 불평할 수는 없다.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의연함을 보였다. 마인드도 세계 랭킹 1위 다웠다.

용인대 유도부 감독을 맡고 있는 윤현 교수도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환경을 설명하며 답답해했다. 기술 훈련이 쉽지 않아 체력 훈련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생 선수들의 특성상 비대면 강의까지 수강해야 한다.

윤 교수는 “도복 운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라며 “오전에는 선수들이 비대면 강의를 듣고 오후에 훈련한다. 오전에는 체력과 근력 운동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밴줄과 튜브, 코어 운동을 하고 있다. 도복을 입고 기술 훈련을 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게다가 실전 경기를 못하니 많이 답답하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유도연맹에 따르면, 8월까지 예정된 국제대회는 모두 연기됐다. 9월 18~2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10월 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릴 예정인 그랑프리 대회와 10월 11~13일 브라질 브라질리아, 10월 22~24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예정된 그랜드슬램 대회는 아직 연기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내 대회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올해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한 2020순천만국 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3월 23일~27일) 등 기존에 예정됐던 대회들은 이미 무기한 연기됐고,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교보생명컵꿈나무유도대회는 아예 취소됐다. 게다가 10월 구미 등 경북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체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교수는 “전국체전까지 열리지 않으면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크다”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대회도 10월은 돼야 일정의 윤곽이 나올 듯하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길 바란다”라고 진심으로 바랐다. ❸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한국 유도!

코로나19에 온정 보인 한국 유도계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멈추게 하고, 많은 것을 아프게 했다. 한국 유도계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래 전국 많은 유도장의 회원이 급감하는가하면, 체육관 운영을 멈추고 말았다. 이에 전국 각지의 유도회가 두 팔 걷고 나섰다. 또 국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었던 유도 스타들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힘을 보탤 방법을 찾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도회의 움직임을 추적해보았다.

서울시유도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온정의 손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힘은 힘들 때 서로 돋는 상생의 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돋는 유도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잇따라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유도관들은 상당수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무기한 휴원 또는 소수의 관원들로 운영하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유도회가 이런 유도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천우 회장이 이끄는 서울시유도회는 지

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도장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50만 원의 운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유도인의 따뜻함을 보여줬다. 서울 지역의 유도관은 62곳이다.

광주시유도회, 긴급 자금 지원

광주시유도회도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4월 7일, 염창곤 광주시유도회장을 비롯해 12개 체육관 관장, 유도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영지원금 50만 원씩을 전달했다.

염창곤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라며 “유도인의 정신으로 희망을 잃지 말고 다 같이 힘을 내자”고 말했다.

최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감독은 유망주들이 계속해서 유도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체육관을 순회 방문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유도회

도내 140개 유도관에 7,000만 원 지원

경기도유도회는 총 7,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유도관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 경기도유도회는 지난 4

월 1일 긴급회의를 열어 31개 시·군 140개 체육관에 각각 50만 원씩 총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1,500ℓ의 손 소독제를 체육관별로 분배했다.

서정복 경기도유도회장은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체육관 95% 이상이 운영하지 못해 관장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이렇게라도 위로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 관장들의 역할에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협회와 협의했다”며 “유도회와 체육관장들이 이번 일을 잘 버티고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입시 문제도 심각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종식 소식이 들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유도회

도내 체육관 운영비 지원

강원도유도회도 체육인 돕기에 나섰다. 강원도유도회가 검도회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체육관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다. 지난 4월 23일, 강원도유도회는 도내 10개 유도장에 5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강생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임시 휴원을 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체육관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

충북유도회

긴급자금 지원 및 선수들 장학금

충북 유도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 수범했다. 충북유도회는 도내 17개 유도체육관에 50만 원씩 85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도선수 31명을 선발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4월 9일 밝혔다.



경기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는 체육관과 선수를 지원하는 건 충북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중 충북유도회가 처음이었다. 최왕수 충북유도회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체육관과 선수를 위해 긴급자금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유도장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힘이 되고 싶었다”라며 “전남 유도인이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매트 위에서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유도회

지역유도관에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도인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던 4월, 전북유도회도 동참했다.

전북유도회는 4월 10일 최동훈 회장을 비롯한 권순태 전 전북유도회장, 류재규 수석부회장, 전영천 실무부회장, 정종열 부회장, 구상희 전무이사, 유도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개 사설유도관에 운영지원금 50만 원씩 1,050만 원을 전달했다. 또 전북유도회 위탁운영 정도관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세 70만 원을 2개월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북유도회는 일정 기준을 갖춘 유도관에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추진했다가 모든 유도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소속 전 유도관 지원으로 확대했다. 최동훈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활동을 자제하고 업체마다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도관들도 관원 감소로 운영난에 봉착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유도 최일선의 현장에서 소중하게 쓰여 용기를 잃지말고 유도의 저변확대와 유도 발전에 일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북유도회의 재난지원금 전달이 체육계로 퍼져나갈 기대한다”며 “체육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유도회와 대한체육회 차원의 대책들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인섭 정읍유도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고 활력을 되찾을 날이 막막하지만 전북유도회의 지원으로 힘이 생긴다”며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자”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일찌감치 온정 전하기

코로나19가 초반 기승을 부리던 3월,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육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도관들을 위해 30만 원의 농협상품권을 지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인천시 체육계도 나섰다

각양각색 도움의 손길

인천 체육계는 각각의 방법으로 도움에 나섰다. 그 시작은 현혈이었다. 인천시체육회 임직원과 인천시청, 인천시 체육회 소속 선수와 감독, 코치 등 130여 명이 현혈에 나선 것이다. 과거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을 역임했던 황규철 시체육회 회장 직무 대행의 제안에 의해 인천시청 소속 12개



종목 14개팀이 스포츠 정신을 발휘했다. 남녀 유도팀 지도자, 선수들도 있었다. 이들은 현혈에 그치지 않고 한참 코로나19 피해 가剡던 대구 시민들을 돋기 위해 68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건네기도 했다.

안산시유도회

안산시청과 함께 따뜻한 마음 건네

홍희성 안산시유도회장은 4월 22일 안산시역 체육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내 5개 유도체육관과 2개 유도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안정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지원했다. 운영난을 겪는 유도관을 돋고, 훈련 중단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안산시청, 관산중 유도팀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홍희성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유도체육관들이 회원 급감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지원을 하게됐다. 약소하나마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체육관과 선수, 지도자들을 위한 희망 기금으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안산시청 여자 유도팀은 이용호 감독을 비롯 정보경과 윤현지 등 선수단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손세정제 100개를 자체 구입해 지역 유도체육관에 전달하고 사설 체육관과 관산중 체육관 등을 돌며 방역활동을 펼쳤다. 고용환 신안유도체육관장은 “사회

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2개월 동안 휴관하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안산시유도회와 시청 유도팀이 희망을 불어넣어 줘 힘이 난다”고 밝혔다.

포항시유도회

지역 체육계 귀감

이문석 회장이 이끄는 포항시유도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생활체육 유도장을 위한 긴급자금 및 방역지원에 나서 지역 체육계 귀감이 되었다.

포항시유도회는 지난 4월 4일 시유도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유도관별로 운영지원금 50만 원과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포항지역의 유도관은 6곳이다.

이문석 포항시유도회장은 “이번 방역 지원을 통해 유도장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유도인들이 솔선수범해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지역 방역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빠른 시일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서귀포시유도회

코로나19 지원금 전달

김미자 회장이 이끄는 서귀포시유도회도 6월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관내 유도체육관 2곳(서귀포유

도관, 플라이유도센터)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미자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서귀포시유도회가 유도인들의 큰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귀포시유도회가 지역사회에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으라차차! 힘내라 한국유도!”

따뜻한 유도인들의 단합

“으라차차! 힘내라 대한민국 유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 유도 체육관 관장을 향한 선수들의 힘찬 응원 메시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도 관장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모범적인 유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고마움을 표했다.

남자 66kg이하급 안바울-김찬녕, 남자 100kg이상급 김성민, 여자 52kg이하급 정보경, 여자 70kg이하급 김성연 그리고 충남 보령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 각종 유소년 선수들이 응원 영상을 올렸다. 스타트는 한국 남자 유도 국가대표의 큰 형

님 김성민이 끊었다. 김성민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체육관 관장님들과 관원들이 힘들어하신다. 선수들도 도쿄올림픽이 미뤄져 힘들어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모두 웃고, 힘냈으면 좋겠다. 유도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재기에 성공한 안바울이 나섰다. 안바울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모두 이겨내주셨으면 좋겠다.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필룩스 그룹

코로나19 극복 위해 1억 기부

2018년부터 남녀 필룩스 유도단을 운영하는 필룩스 그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큰 기부에 나섰다. 3월 30일,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남녀 유도단을 운영하고 있는 필룩스 그룹은 블루나눔재단을 통해 남녀 유도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룩스 그룹이 출연해 설립한 블루나눔재단은 체육인재 발굴과 국제 스포츠 교류를 위해 2018년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필룩스유도단은 2018년 11월 유도단 남자팀을 창단했고, 올해 1월 국가대표 여자 유도선수 57kg이하급 김잔디, 63kg이하급 한희주 선수를 영입해 여자 유도팀을 새롭게 꾸렸다. 필룩스 그룹은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 등 단체에 1억 원도 기부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배상운 필룩스 그룹 회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지원을 통해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각종 국제대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 획득 등의 우수한 성적을 통한 국위선양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❸



남자 60kg이하급 금메달 김원진(국군체육부대)



‘이 기세 도쿄 올림픽까지!’ 한국, 텔아비브 그랑프리 종합 우승

한국이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된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일본과 이스라엘, 영국을 제쳤다. 비록 일본이 1진 멤버를 출전시키지 않았어도 국제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 여자부에서도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1개씩 차지하며 종합우승에 힘을 보탰다.

금메달



남자 60kg이하급 김원진(국군체육부대)
남자 66kg이하급 안바울(남양주시청)
남자 90kg이하급 곽동한(하이원)

남자 60kg이하급 김원진은 지난해 열린
오사카 그랜드슬램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오랜만에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

웠다. 이번에도 그 기운은 이어졌다. 1회전
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김원진은 2회전에
서 야고(러시아)에 반칙승(지도 3개), 3회
전에서 마그잔(키자흐스탄)에 발록 반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4회전에 진출했다. 4회전
에서는 일리즈 살리(터키)에 반칙승(지도 3
개)을 거뒀다. 김원진은 준결승에서 일본의 아오키 다이
를 만났다. 아오키 다이는 최근 국제 대회

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다 지난해 오사
카 그랜드슬램에서 5위를 기록하며 반등
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원진은 아오키 다이
에의 상승세를 따돌리고 꺾기 한판승을 거
뒀다. 아오키 다이는 이 체급 3위를 기록했
다. 김원진은 결승전에서 터키의 신예 미흐
락 아쿠스에 지도 3개를 끌어내 반칙승으
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 리우올림픽 남자 66kg이하급 은메

달리스트 안바울도 2018 자카르타-팔렘
방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으로 국제 대회에
서 금메달을 땄다. 한동안 부진의 늪에 빠
졌던 안바울은 조금씩 기량 회복세를 보였
다. 2019 전국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2019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에서 3위를 차지했다.
안바울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과 3회전을 각각 반칙승(지도 3개)으
로 이끌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4회전
에서 페루 포스티고스 주안, 준결승전에서
탈 플리커(이스라엘)를 상대로 한판승을
거두며 결승에 무난하게 진출했다. 자신의
장기인 업어치기로 상대를 제압했다. 업어
치기의 진가는 결승전에서도 발휘됐다. 안
바울은 세계랭킹 11위 예를란 세리자노프
(카자흐스탄)에 업어치기 절반 2개를 따내
며 한판승으로 약 2년 만에 국제 대회 우승
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경기 시작 50
여 초 만에 상대 몸을 비집고 들어가 업어
치기로 절반을 따냈고, 정규시간 30여 초
를 남기고 다시 업어치기로 상대 몸을 뒤
집으며 나머지 절반을 획득했다. 이번 우승
으로 한국 남자 66kg이하급에 김임환이¹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자신도 죽지 않았
다는 것을 보여줬다.

남자 90kg이하급에 출전한 곽동한은 약 1

남자 90kg이하급 금메달 곽동한(하이원)



년 만에 국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2015
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2017년 세계선
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곽동한은 2019
년 2월 파리 그랜드슬램 우승 이후 최근 1
년 동안 국제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하
지 못했다. 2019 세계선수권에서는 입상조
차 하지 못했고, 아부다비 그랜드슬램과 오
사카 그랜드슬램에서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는 데 성공했다.
곽동한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
회전에서 에스토니아 크리스토퍼에 허벅
다리걸기 절반승을 거두며 3회전에 진출
했다. 3회전과 4회전은 모두 상대에게 지
도 3개를 가져오며 반칙승으로 준결승전
에 진출했다. 준결승 상대는 브라질의 라
파엘었다. 국제 대회에서 많은 우승을 차
지한 경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실력을 상승시키고 있는 선수다. 남미 특유
의 부드러움 속에 힘을 갖춘 선수로 평가된
다. 하지만 자신감이 차오른 곽동한은 라파
엘을 소매 들어 메치기로 절반을 가져왔고,
이를 경기 끝까지 유지하며 절반승을 따냈
다. 그는 결승전에서 미카일 외젤레르(터
키)를 소매 들어 허리 채기 절반으로 꺾고
우승하며 포효했다. 1년 만에 순위표 맨 꼭
대기 위에 선 곽동한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기대케했다.



은메달

여자 52kg이하급 정보경(안산시청)
여자 70kg이하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남자 100kg이상급 김성민(블루나눔필록스)

여자 52kg이하급에 출전한 정보경은 아쉽게 결승에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보경은 2회전부터 준결승전까지 한판승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효과적으로 상대 지도를 이끌어내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와 승리를 따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상대는 준결승전에서 박다솔을 이기고 올라온 일본의 마에다 치시마였다. 마에다 치시마는 떠오르는 신예로 지난해 오사카 그랜드슬램 3위를 차지했다. 정보경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경기 시작 2분 39초 만에 누르기 한판패를 당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여자 70kg이하급에 출전한 김성연도 지난해 몬트리올 그랑프리 3위 이후 처음으로 국제 대회 입상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부상 투혼이 빛난던 김성연의 이번 대회였다. 김성연은 1회전 첫 경기부터 난적을 만났다.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 우승 경험이 있는 그레차크(헝가리)를 맞아 절반을 내주며 시작했으나 다행히 한판을 따내며 역전승을 거뒀다. 2회전에서는 포고르젤레치(폴란드)를 소매치기 절반승으로 제압했고, 3회전에서도 세계랭킹 9위 포르텔라(브라질)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뒀다.

8강에 안착한 김성연은 플레처(아일랜드)를 상대로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며 반칙승을 거뒀다. 8강을 비교적 가볍게 이기고 올라온 김성연은 4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경험하게 된다. 준결승전에서 미리암 부트케라이트(독일)와 경기 도중 팔꿈치를



여자 70kg이하급 은메달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 대회 결과(금메달)

| 선수 | 경기 | 상대 | 결과 |
|-------------------------|------|--------------------------------|-------------------------|
| 60kg이하급 김원진 (국군체육부대)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ABULADZE, Yago(RUS) | 반칙승(지도3) |
| | 3회전 | SHAMSHADIN, Magzhan(KAZ) | 발목반치기 한판승 |
| | 4회전 | YILDIZ, Salih(TUR) | 반칙승(지도3) |
| | 준결승전 | AOKI, Dai(JPN) | 꺾기 한판승 |
| | 결승전 | AKKUS, Mihrac(TUR) | 반칙승(지도3) |
| 66kg이하급 안바울 (남양주시청)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STEFANELLI, Biagio(ITA) | 반칙승(지도3) |
| | 3회전 | MINKOU, Dzmitry(BLR) | 반칙승(지도3) |
| | 4회전 | POSTIGOS, Juan(PER) | 업어치기 한판승 |
| | 준결승전 | FLICKER, Tal ISR) | 업어치기 한판승 |
| | 결승전 | SERIKZHANOV, Yerlan(KAZ) | 업어치기 절반, 업어치기 절반 종합 한판승 |
| 90kg이하급 곽동한 (하이원)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KALJULAID, Klen Kristofer(EST) | 허벅다리걸기 절반승 |
| | 3회전 | PACHER, Johannes(AUT) | 반칙승(지도3) |
| | 4회전 | BROWN, Colton(USA) | 반칙승(지도3) |
| | 준결승전 | MACEDO, Rafael(BRA) | 소매들어 메치기 절반승 |
| | 결승전 | OZERLER, Mikail(TUR) | 소매들어 메치기 한판승 |

▶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 대회 결과(은메달)

| 선수 | 경기 | 상대 | 결과 |
|---------------------------|------|----------------------------------|-------------------------------------|
| 52kg이하급 정보경 (안산시청)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ESTEO LINNE, Nina Estefania(ESP) | 절반승 |
| | 3회전 | TSCHOPP, Evelyne(SUI) | 반칙승(지도3) |
| | 4회전 | CHITU, Andreea(ROU) | 절반승 |
| | 준결승전 | PIENKOWSKA, Karolina(POL) | 반칙승(지도3) |
| | 결승전 | MAEDA, Chishima(JPN) | 한판패 |
| 70kg이하급 김성연 (광주도시철도공사) | 1회전 | GERCSAK, Szabina(HUN) | 업어치기 한판승 |
| | 2회전 | POGORZELEC, Daria(POL) | 소매들어 업어치기 절반 소매들어 업어치기 절반 종합 한판승 |
| | 3회전 | PORTELA, Maria(BRA) | 업어치기 절반승 |
| | 4회전 | FLETCHER, Megan(IRL) | 반칙승(지도3) |
| | 준결승전 | BUTKEREIT, Miriam(GER) | 반칙승 |
| | 결승전 | CONWAY, Sally(GBR) | 발뒤축걸기 한판패 |
| 100kg이상급 김성민 (블루나눔필록스)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SIPOCZ, Richard(HUN) | 발뒤축걸기 한판승 |
| | 3회전 | GORDIENKO, Oleksandr(UKR) | 허리후리기 한판승 |
| | 4회전 | KRAKOVETSII, Iurii(KGZ) | 어깨로메치기 한판승 |
| | 준결승전 | OLTIBOEV, Bekmurod(UZB) | 안아돌리기 한판승 |
| | 결승전 | SASSON, Or ISR) | 모두걸기 절반패 |

다친 것이다. 반칙승으로 결승에 올라가긴 했지만, 결승전에서 팔꿈치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경기 시작 2분 8초 만에 샐리 콘웨이(영국)에게 발뒤축걸기 한판패를 허용했다.

김성연의 세계랭킹은 27위다. 올림픽 티켓은 세계랭킹 18위까지 주어진다. 한국 여자 70kg이하급에 간판 김성연이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 티켓을 딸 수 있을까.

남자 100kg이상급에 출전한 김성민도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아부다비 그랜드슬램 3위 이후 약 반 년 만에 다시 한번 국제 대회 수상대에 올랐다. 김성민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

전부터 준결승전까지의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가져왔다. 2회전에서는 리차드(헝가리)에게 발뒤축걸기 한판승을 따냈고, 3회전에서는 알렉산더(우크라이나)에 허리후리기 한판승을 가져왔다. 4회전에서는

크라코베트스키(기르기스스탄)에 어깨로메치기 기술을 사용해 한판승을 땄고 준결승전에서는 벨크무라드(우크라이나)에 안아돌리기 한판승을 가져왔다. 네 경기 모두 각기 다른 기술로 승리를 따내며 100kg이상급 간판의 위엄을 보여줬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이스라엘의 사손에게 모두걸기 절반패를 내주며 그토록 원하던 우승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동메달

여자 52kg이하급 박다솔(순천시청)
여자 78kg이하급 윤현지(안산시청)

지난해 아부다비 그랜드슬램 3위, 자그레브 그랑프리 대회에서 2위에 올랐던 52kg 이하급 박다솔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렸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박다솔은 2회전에서 터키의 이렌에게 절반승, 3회전에서 크리스티나(몰도바)에 한판승을 거두며 무리 없이 4회전에 진출했다. 4회전에서도 이스라엘의 프라이모를 만나 지도 3개를 따내 반칙승

여자 52kg이하급 은메달 정보경(안산시청)



남자 100kg이상급 은메달 김성민(블루나눔필록스)



▶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 대회 결과(동메달)

| 선수 | 경기 | 상대 | 결과 |
|-----------------------|--------|-----------------------------|------------------|
| 52kg이하급 박다솔 (순천시청)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KORKMAZ, Iren(TUR) | 절반승 |
| | 3회전 | BLANARU, Cristina(MDA) | 한판승 |
| | 4회전 | PRIMO, Gefen ISR) | 반칙승(지도3) |
| | 준결승전 | MAEDA, Chishima(JPN) | 한판패 |
| | 동메달결정전 | POLIKARPOVA, Anastasia(RUS) | 반칙승(지도3) |
| 78kg이하급 윤현지 (안산시청) | 1회전 | KENYON, Omri ISR) | 반칙승(지도3) |
| | 2회전 | TAKAYAMA, Rika(JPN) | 허벅다리걸기 한판승 |
| | 3회전 | WAGNER, Anna Maria(GER) | 어깨로메치기 절반승 |
| | 준결승전 | GRAF, Bernadette(AUT) | 반칙패(지도3) |
| | 동메달결정전 | BROLIH, Patricia(SLO) | 허벅다리걸기 절반 종합 한판승 |

을 거두며 준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준결승전에서 마에다 치시마(일본)에 패하며 우승의 꿈을 다음 기회로 미뤄 야만 했다. 경기 시작 32초 만에 상대에게 한판패를 당했다. 다행히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나스타샤 폴리카르포바(러시아)에 지도 3개를 따내 반칙승을 거둬 동메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여자 78kg이하급에 출전한 윤현지는 1회전에서 이스라엘의 케넌에게 반칙승(지도 3개), 2회전에서는 다카야마 리카(일본)에게 허벅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두며 3회전에 올랐다. 그녀는 3회전에서도 안나 마리아(독일)에게 어깨로 메치기 절반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베르나데트(호주)에 지도 3개를 내주며 반칙패했고, 결국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려났다.

우승의 꿈은 좌절됐지만, 윤현지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결국 동메달 결정전에서 베트리시아 브로리(슬로베니아)를 배대되치기 절반에 이은 허벅다리걸기 절반을 합해 한판으로 제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 외 선수들의 성적은?

남자 60kg이하급에 출전한 이하림(용인대)은 어렵게도 메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이하림은 2회전과 3회전에서 반칙승(지도 3개)을 가져오며 4회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4회전에서 미흐락 아쿠스에 지도 3개를 내주며 반칙패를 당했다. 이후 패자 부활전에서 벨기에의 조례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둔 뒤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으나 일본의 아오키 다이에 팔가로누워꺾기 한판패를 내줬다. 여자 63kg이하급 한희주(블루나눔필록스)와 남자 81kg이하급 이성호(한국마사회)는 패자부활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회전

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한희주는 2회전과 3회전에서 각각 상대에게 발뒤축걸기 한판승, 반칙승(지도 3개)을 가져오며 4회전에서 무난히 진출했다. 하지만 4회전에서 브라질의 알레시아를 만나 허벅다리걸기 되치기 절반을 두 번 내주며 결국 한판패로 상위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한희주는 패자 부활전에서도 바리オス(베네수엘라)에 발뒤축걸기 한판패를 내주며 동메달 결정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최근 국제 대회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성호는 1회전에서 스페인의 알폰소를 상대하며 발뒤축걸기 절반 및 업어치기 절반 한판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그는 2회전에서도 사미(벨기에)에게 반칙승(지도 3개), 3회전에서 빌라드미르(키르기즈스탄)에 허리꺾치기 절반 및 발

여자 78kg이하급 동메달 윤현지(안산시청)



뒤축걸기 절반 종합 한판승을 거두며 4회전에 올랐다. 그러나 4회전에서 반칙패를 내줬고, 패자 부활전에서도 브라질의 산토스에게 발목 받치기 한판패를 내주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여자 57kg이하급 간판 김잔디(블루나눔필록스)는 3회전에서 떨어지며 최근 좋지 못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 73kg이하급 안창림(남양주시청) 역시 3회전에서 슬로바키아의 마르틴에게 발뒤축걸기 한판패를 내줬다. 여자 63kg이하급에 출전한 조목희(한국마사회)와 70kg이하급 유지영(경남도청)도 3회전에서 상대에게 한판패를 내주며 대회를 마감했다. 남자 100kg이하급 간판 조구함은 3회전에서 떨어지는 이변을 연출했다. 그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에서 조지아의 일라에 지도 3개를 따내 반칙승을 거뒀다. 하

지만 3회전에서 다니엘(벨라루스)에게 안아돌리기 절반을 내준 뒤 경기 종료 직전까지 점수를 따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상대의 수비 전략에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며 상위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남자 100kg이상급 윤재구(한국체대)도 4회전 진출에 실패했다.

남자 66kg이하급 김임환(한국마사회)과 여자 57kg이하급 김지수(경북도청)는 2회전에서 탈락했으며, 남자 90kg이하급 한주엽(용인대), 여자 78kg이하급 이정윤(광주도시철도공사) 역시 3회전에 올라가지 못했다.

여자 48kg이하급 강유정(순천시청), 여자 78kg이상급 한미진(충북도청), 남자 81kg이하급 이희중(한국마사회)은 1회전에서 떨어졌다.

기분 좋은 종합우승으로 2020 스타!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5월, 중국 후허하오터에서 열린 후허하오터 그랑프리 대회 종합우승 이후 약 8개월 만에 맛본 쾌거였다. 2위는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일본이 차지했으며 3위는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딴 개최국 이스라엘이 올랐다. 그 뒤를 영국과 프랑스가 이었다.

물론 일본이 1진급 멤버를 꾸리지 않고 나와 직접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다. 각자 주특기를 십분 활용해 총 8개의 메달을 거머쥔 것은 분명 큰 수확이며, 국제 대회에서 자신감을 얻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다.

이 대회를 발판 삼아, 세계선수권이나 그랜드슬램대회 등에서 랭킹 포인트를 쌓아 도쿄올림픽에 나갈 일만 남았다. ☺

66kg이하급 라이벌의 동반 메달 안바울과 김임환

2020 파리 그랜드슬램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0 국제유도연맹(IJF) 주최 파리 그랜드슬램이 열렸다. 올해 첫 그랜드슬램 대회다. 한국은 지도자 4명, 선수 27명을 포함 총 31명을 대회에 파견했고,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한 일본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2연속 국제 대회 우승

자신감 찾은 안바울

남자 66kg이하급에 출전한 안바울(남양주시청)은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 대회에 이어 또 한 번의 국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안바울은 지난 2018년 11월, 병역 특례 봉사활동 확인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6개월의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복귀 후에도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9 아부다비 그랜드슬램 3위, 2019 전국체육대회 1위를 기록하는 등 조금씩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 대회 우승은 그에게 자신감을 줬다. 그는 2019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첫 국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텔아비브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승승장구했다.

안바울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에서 메테오 메드베스(이탈리아)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따냈다. 3회전과 4회전 역시 무라드 조파노프(러시아), 데니스 비에루(몰도바)를 만나 각각 업어치기 절반승, 발뒤축걸기 절반승을 얻으며 쭉쭉 올라갔다.

8강에서 페레즈 로만 대니얼(스페인)을 만나 업어치기 절반승을, 4강전에서는 몽골의 윤돈페렌레이 바스쿠에 안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두며 큰 문제 없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라이벌 김임환이었다. 김임환은 안바울이 징계로 빠진 사이 66kg이하급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서로를 잘 아는 두 선수는 쉽사리 서로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4분의 짧은 시간 동안 두 선수의 승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연장에 가서야 결정됐다. 안바울은 지도 3개를 따내며 김임환에게 반칙승을 거뒀다. 또 한 번의 국

제 대회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안바울은 경기 감각 문제와 마주하며 고전하다가 올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체급별 올림픽 랭킹 18위까지 주어지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에도 다가왔다. 20위 까지 떨어졌던 세계랭킹은 어느덧 12위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다.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졌다. 어떻게 보면 1년의 미뤄진 시간이 안바울에게는 경기력을 되찾고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바울은 지난 2016 리우올림픽에서 이탈리아 파비아 바실고에 패하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번에는 기필코 도쿄에서 금메달

찬가를 부르겠다는 각오다.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선 안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자.

아쉬운 패배, 김임환

또 한 번 라이벌을 넘지 못했다. 김임환은 지난해 안바울이 없는 사이 국가대표 1진으로 올라섰다. 재일교포 3세인 김임환은 일본 유도 명문 도카이대를 나와 2015년부터 태극마크를 달았으나 안바울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2인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2019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유도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019 후허하오터 그랑프리 대회



안바울(왼쪽)이 파리 그랜드슬램 결승에서 김임환과 유도복 깃 잡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경기에서 김임환을 꺾고 우승한 안바울은 도쿄올림픽 출전의 희망을 살렸다.



에서는 금메달을 땄다. 이 두 대회는 김임환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대회들이었다.

김임환은 파리그랜드슬램에서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이번에도 2위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김임환은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서 2위를 기록했다.

김임환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에서 체코에서 페트리코프 파벨에 반칙승(지도 3개)을 거뒀다. 3회전과 4회전 그리고 8강전은 안다리걸기 기술이 통했다. 3회전에서 케빈 아제마(프랑스)에게 안다리걸기 한판승, 4회전에서는 브라질의 월리안 리마에게 안다리걸기 절반승을 거두며 순조롭게 예선을 통과했다. 8강전에서는 가이테로 마르틴 알베르토(스페인)을

만나 안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뒀다. 자신의 장기인 안다리걸기 기술이 통했다. 4강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조지 잔타리아에 반칙승을 거뒀다. 막힘없이 나갔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라이벌 안바울을 만났다. 김임환은 이 경기 전까지 안바울을 만나 1승 3패의 상대 전적으로 열세였다. 김

임환은 그간 안바울의 기술 유도에 꼼꼼 못 했다. 김임환은 안바울을 상대로 선전 했다. 4분이라는 시간 내에 승부를 보지 못 할 정도로 두 선수의 승부는 치열했다. 하

다. 3회전에서 케빈 아제마(프랑스)에게 안

다리걸기 한판승, 4회전에서는 브라질의

월리안 리마에게 안다리걸기 절반승을 거두며 순조롭게 예선을 통과했다. 8강전에서는 가이테로 마르틴 알베르토(스페인)을

때 3,000점 이상 벌어져 있던 두 점수 차는 어느 덧 680점까지 좁혀졌다(김임환 : 10위, 3,801점, 안바울 : 12위, 3,121점). 안바울이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하면 단번에 뒤집히는 점수차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대회는 물론이고 국제 대회도 모두 연기됐다. 올림픽이 1년 연기된 시점에서 두 선수 중, 도쿄행 티켓을 가져갈 사람은 누구일까.

나머지 선수들의 성적은 아쉽다

한국은 안바울과 김임환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대회 첫째 날에는 안바울과 김임환을 포함해 남녀 13명의 선수가 나섰다. 여자 48kg이하급 강유정(순천시청)과 오연주(동해시청)

는 각각 패자 부활전과 1회전에서 탈락했다. 남자 60kg이하급 이하림(한국마사회), 여자 57kg이하급 권유정(안산시청), 김잔디(필룩스), 남자 73kg이하급 안준성(한국마사회)은 2회전에 조기 탈락했다. 여자 52kg이하급 쌍두마차 박다솔(순천시청)과 정보경(안산시청) 역시 3회전에서 탈락했다. 박다솔은 텔아비브 3위의 기운을 잊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여자 63kg 이하급에서 나선 한희주(필룩스)와 조목희(한국마사회) 역시 모두 패자 부활전과 3회전에서 떨어졌다.

가장 많은 아쉬움이 남는 선수는 남자 60kg이하급에 출전한 김원진(국군체육부대)일 것이다. 김원진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과 3회전에서 각각 펠리페(브라질)와 알버트(러시아)에게 반칙승 팔가로누워꺾기 한판승을 거두며 4회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4회전에서 일본의 나카야마 류지에게 업어치기 한판패를 내주며 상위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패자 부활전에서 카자흐스탄 구즈만에게 허벅다리걸기 절반 및 누르기 절반 종합 한판승을 거두며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으나

끝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김원진은 텔아비브 우승에 이어 또 한 번 우승을 노렸으나 다음으로 기약해야만 했다.

둘째 날에도 아쉬운 성적은 계속됐다. 남자 81kg이하급에 출전한 이성호(한국마사회)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3회전 이상을 진출하지 못했다. 이성호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과 3회전에서 업어치기 한판승, 반칙승을 따내며 4회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4회전에서 몰도바의 도린에게 밭다리걸기 되치기 절반패를 내주며 상위 라운드에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동메달리스트 남자 100kg이상급 김민종(용인대)도 3회전에서 떨어졌다. 남자 81kg이하급 이문진(필룩스), 여자 70kg이하급 유지영(경남도청), 남자 90kg이하급 이홍규(국군체육부대), 여자 78kg이상급 한미진(충북도청)과 김민정(한국마사회)은 3회전에서 모두 떨어졌다.

여자 78kg이상급에 출전한 이정윤(광주도시철도공사)과 윤현지(안산시청), 남자 100kg이상급에 출전한 김성민(필룩스)은 2회전에서 떨어졌다.

그 외 여자 70kg이하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남자 90kg이하급 한주엽(용인대), 남자 100kg이하급 원종훈(양평군청)은 1회전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여자 유도계의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다. 올림픽 출전은 세계랭킹 18위 안에 들어야 티켓이 주어진다. 하지만 한국 유도에서 세계랭킹 18위 안에 든 이는 세 명뿐이다. 여자 52kg이하급 박다솔이 16위, 여자 78kg이상급 김하윤과 한미진이 각각 16위와 17위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한 번의 국제 대회 우승만 거둬도 세계랭킹이 경충 된다. 하지만 최근 기세를 봤을 때 우승은 고사하고 메달권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여자 유도의 부활을 기대해본다. ☯



▶ 2020 파리 그랜드슬램 대회 결과

| 선수 | 경기 | 상대 | 결과 |
|-------------------------------|------|------------------------------|-----------|
| 금메달 66kg이하급 안바울 (남양주시청)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MEDVES, Metteo(ITA) | 업어치기 절반승 |
| | 3회전 | CHOPANOV, Murad(RUS) | 업어치기 절반승 |
| | 4회전 | VIERU, Denis(MDA) | 발뒤축걸기 절반승 |
| | 5회전 | PEREZ ROMAN, Daniel(ESP) | 업어치기 절반승 |
| | 준결승전 | YONDONPERENLEI, Baskhuu(MGL) | 안다리걸기 한판승 |
| | 결승전 | KIM, Limhwan(KOR) | 반칙승(지도3) |
| 은메달 66kg이하급 김임환 (한국마사회)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PETRIKOV, Pavel(CZE) | 반칙승(지도3) |
| | 3회전 | AZEMA, Kevin(FRA) | 안다리걸기 한판승 |
| | 4회전 | LIMA, Willian(BRA) | 안다리걸기 절반승 |
| | 5회전 | GAIERO MARTIN, Alberto(ESP) | 안다리걸기 한판승 |
| | 준결승전 | ZANTARAIA, Georgii(UKR) | 반칙승(지도3) |
| | 결승전 | AN, Baul(KOR) | 반칙승(지도3) |

천적에게 다시 한번 무너진 안창림 다음을 기약하며

2020 뒤셀도르프 그랜드슬램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2020 국제유도연맹(IJF) 주최 뒤셀도르프 그랜드슬램이 열렸다. 파리 그랜드슬램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그랜드슬램 대회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9위를 기록했다. 여자 체급에서 메달이 하나도 나오지 못한 게 아쉬웠다. 종합 우승은 금메달 8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낸 일본이 차지했다.

이번에도 오노에게 패하다

은메달 안창림

남자 73kg이하급 안창림(남양주시청)은 최근 부상으로 인해 국제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

된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대회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며 지난해 4월 아시아-태평양 유도선수권대회 개인전 은메달 이후 약 9개월 만에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기록했다. 안창림은 이번에도 그 기세를 이어갔다. 안

창림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번에 대회에 임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안창림은 2회전에서 형가리 프리지 스자보에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두며 순항했다. 3회전 기요손 보보에프(우크라이나)에는 조르기 한판승을, 4회전 아르템 코풀라(우크

라이나)에게도 반칙승(지도 3개)을, 5회전 스테파 벅토르(마케도니아)에게는 꺾기 한판승을 따내며 무서운 속도로 준결승까지 올라왔다.

준결승 상대는 세계랭킹 2위 아제르바이잔의 루스탄 오르조프였다. 세계랭킹 11위인 안창림보다 아홉 계단이나 높았다. 오르조프는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이 체급 준우승을 기록한 강호다. 두 선수는 경기 초반 탐색전을 펼치며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고자 했다. 심판은 공격 의지를 보이지 않는 두 선수에게 지도를 주기도 했다. 이

경기는 경기 종료 4초가 남았을 때 승자가 결정됐다. 안창림은 경기 종료 4초를 남기고 기습적인 누르기 한판승을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천적 오노 쇼헤이(일본)였다. 이 날 경기 전까지 안창림은 5전 5패로 오노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었다. 2018년 자카르타-팔랑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오노를 넘지 못하고 은메달에 머물렀다. 오노는 지난해 세계선수권은 물론이고 파리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한 이 체급 최강자다. 안창

림은 경기 초반부터 오노의 기세에 밀렸다. 안창림은 경기 시작 1분 24초 만에 공격 반칙으로 지도를 받았다. 이후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다 오노의 기습적인 공격에 무게 중심이 무너졌고, 결국 절반을 내줬다. 이후에도 안창림은 지도 한 개를 더 받으며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은메달에 머물러야 했다. 안창림은 이날 패배로 오노와 상대 전적 6전 6패를 기록했다. 도쿄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오노와 대등한 승부가 필요하다. 안창림의 과연 어떤 올림픽 전까지 대비책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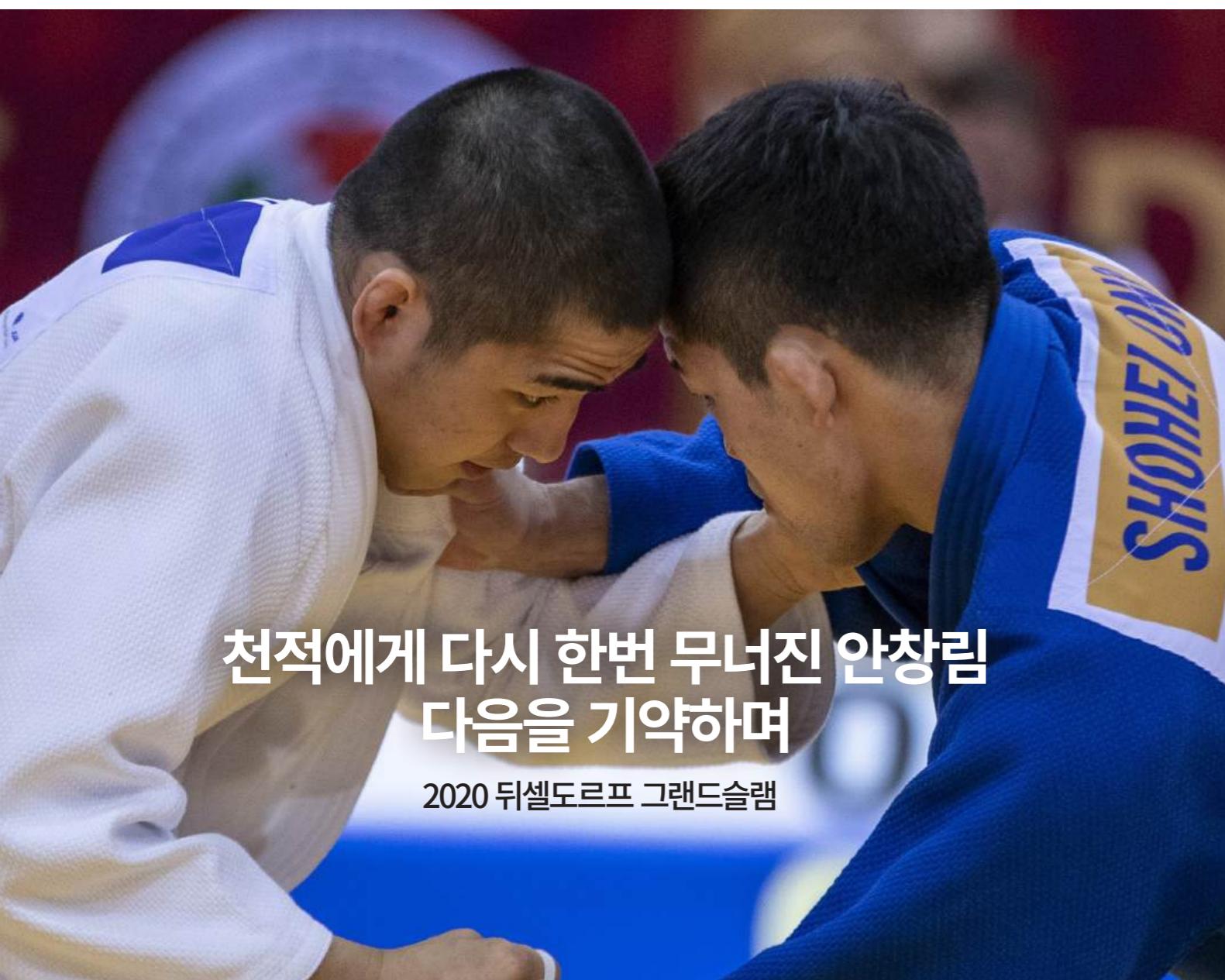
값진 동메달을 획득한 김원진-김민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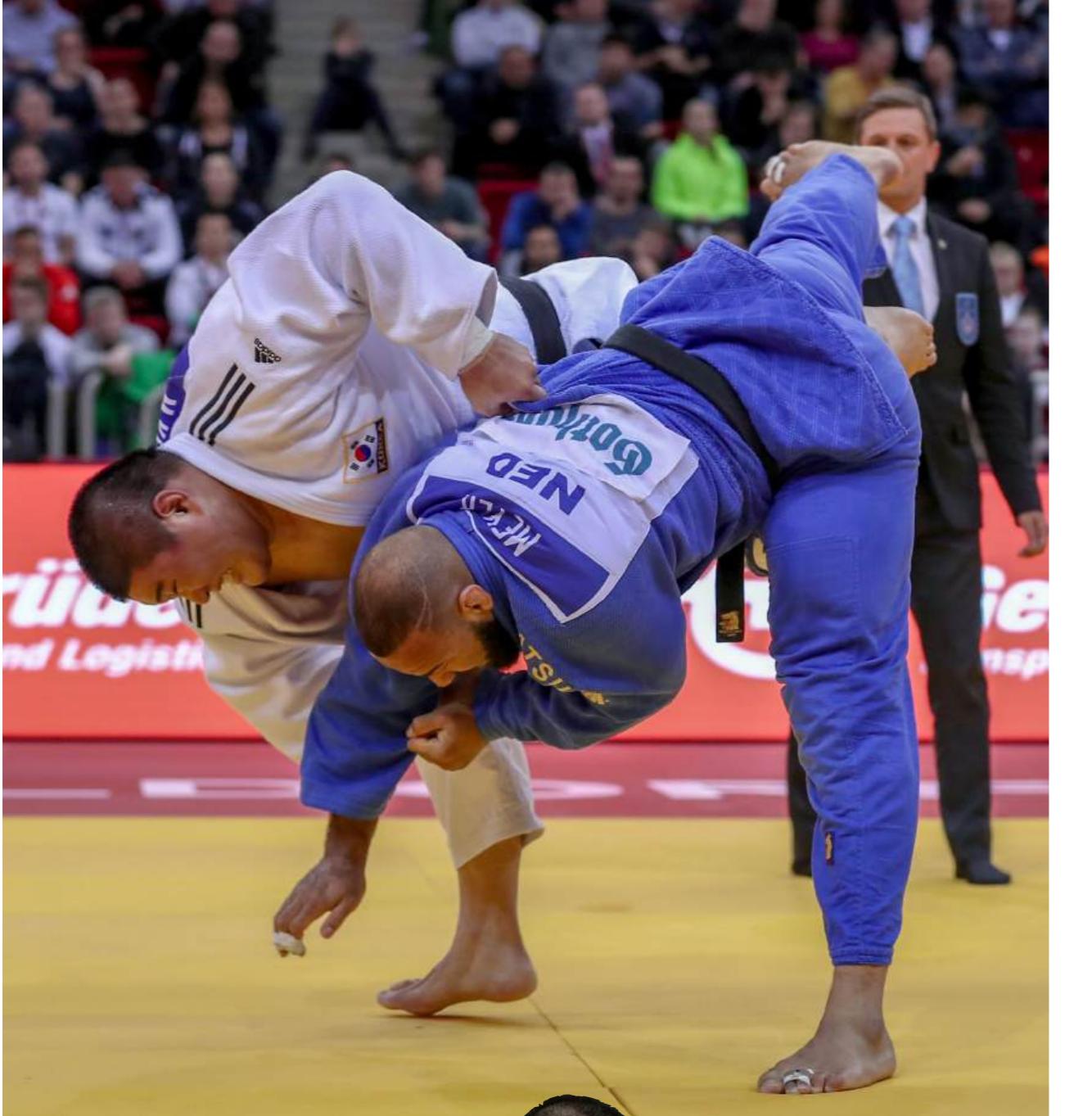
김원진(국군체육부대)은 올해 1월,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대회에서 남자 60kg이하급 금메달을 차지하며 2020년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2015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김원진은 약 5년 만에 이 대회 우승에 도전했다. 시작은 좋았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김원진은 2회전과 3회전도 각각 발뒤축걸기, 허리후리기 한판승을 기록하며 기세를 이어갔다. 4회전에서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가리고스(스페인)를 만난 김원진은 겨드랑이대팔꺾기 반칙승으로 준결승에 안착했다. 하지만 준결승전에서 다카토 나오히사(일본)에 소매들어메치기 한판패를 당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다행히 동메달 결정전에서 벨기에의 베르사트라тен 조레(벨기에)에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두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원진은 최근 네 번의 국제 대회에서 모두 5위 안에 들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유도의 희망 남자 100kg이상급 김민종(용인대)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종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100kg이상급 3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성인 무대에

남자 73kg이하급 안창림(남양주시청)





남자 100kg이상급 김민종(용인대)

안착했다. 김민종은 만 19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 선수 중에서는 적수가 없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첫 국제 대회인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3회전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다. 그렇기에 이번 대회가 더욱 중요했다. 김민종은 1회전을 부회전으로 통과했고, 2회전과 3회전도 각각 허리후리기 되치기 절반승과 반칙승(지도 3개)을 따내며 순항했다. 하지만 4회전에서 일격을 당했다. 투시빌리 구람(조지아)에 누르기 한



판패를 당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패자 부활전으로 간 김민종은 다시 마음을 다 잡았다. 그는 벨라루스 알릭산드르에 허벅다리 걸기 되치기 절반을 먼저 따낸 뒤 이후 다시 한번 허벅다리걸기 되치기 절반을 기록하며 종합 한판승을 거뒀다. 김민종은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네덜란드의 로이 메이어를 어깨로메치기 한판승으로 누름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파리에 이어 여자 선수들의 아쉬운 노메달 소식

아쉽다. 남자 선수들과 달리 여자 선수들

의 메달 소식이 이번에도 전해지지 않았다.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대회에서 52kg이하급 박다솔(순천시청), 78kg이하급 윤현지(안산시청)가 동메달을 따냈지만 2020 파리 그랜드슬램에서는 노메달에 그쳤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70kg이하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이 기록한 5위가 가장 높은 순위였다.

48kg이하급 강유정(순천시청)은 2회전 탈락, 동체급 오연주(동해시청)와 52kg이하급 정보경(순천시청)은 3회전에서 탈락했다.

57kg이하급의 두 간판 김잔디(필록스)와 김지수(경북도청) 역시 각각 3회전, 2회전에서 떨어졌다. 63kg이하급 한희주(필록스)와 조목희(한국마사회)는 3회전에서 떨어졌고, 70kg이하급 유지영(경남도청)은 2회전에서 탈락의 쓴맛을 봤다.

중량급 간판 윤현지, 이정윤(광주도시철도공사)는 물론이고 78kg이상급 김하윤(한국체대)도 상위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매번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본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이 대회에서 여자 7체급 중 5체급을 석권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새로운 승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한국 여자 유도다. ④



남자 60kg이하급 김원진(국군체육부대, 오른쪽에서 두번째)

▶ 2020 뒤셀도르프 그랜드슬램 대회 결과

| 선수 | 경기 | 상대 | 결과 |
|--------------------------------|--------|-----------------------------|----------------------|
| 온메달 73kg이하급 안창립 (남양주시청)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SZABO, Frigyes(HUN) | 반칙승(지도3) |
| | 3회전 | BOBOEV, Giyosjon(UZB) | 조르기 한판승 |
| | 4회전 | KHOMULA, Artem(UKR) | 반칙승(지도3) |
| | 5회전 | STERPU, Victor(MDA) | 꺾기 한판승 |
| | 준결승전 | ORUJOV, Rustam(AZE) | 누르기 한판승 |
| | 결승전 | ONO, Shohei(JPN) | 허벅다리걸기 절반패 |
| 동메달 60kg이하급 김원진 (국군체육부대)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HUSEYNOV, Karamat(AZE) | 발뒤축걸기 한판승 |
| | 3회전 | YASHUEV, Islam(RUS) | 허리후리기 한판승 |
| | 준결승전 | GARRIGOS, Francisco(ESP) | 반칙승(Waki-gatame) |
| | 동메달결정전 | VERSTRAETEN, Jorre(BEL) | 반칙승(지도3) |
| 동메달 100kg이상급 김민종 (용인대학교) | 1회전 | 부전승 | - |
| | 2회전 | ODKHUU, Tsetsentsengel(MGL) | 허리후리기 되치기 절반승 |
| | 3회전 | GRANDA, Andy(CUB) | 반칙승(지도3) |
| | 4회전 | TUSHISHVILI, Guram(GEO) | 누르기 한판패 |
| | 패자전 | VAKHIAVIK, Aliaksandr(BLR) | 허벅다리걸기 되치기 절반 종합 한판승 |
| | 동메달결정전 | MEYER, Roy(NED) | 어깨로메치기 한판승 |

글 이정원 기자

사진 한필상 기자, 국제유도연맹



“마지막 목표는 도쿄올림픽 금메달”

2020 유도인의 밤 최우수선수상 조구함

남자 유도 100kg이하급 최강자 조구함(수원시청)이 2020 유도인의 밤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조구함은 아부다비 그랜드슬램, 후허하오터 그랑프리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며 한국 유도의 자부심이 됐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선수상 수상이다.

<柔道>지는 수원시청에서 훈련에 한창인 조구함과 이야기를 나눴다.

“동료들과 지도자 선생님들 덕분에 큰 상 받아”

▣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2020 유도인의 밤 최우수선수상 수상을 축하한다. 소감 한마디 부탁한다.

▲ 먼저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내가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훈련하는 많은 동료, 열심히 지도해 주신 감독님과 코치님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메달을 따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더 생겼다.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2년 연속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국제 대회에서 나 혼자 메달을 딴 게 아니다.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땄다. 운이 좋게도 내가 최우수선수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 수상 후 어떤 분들이 떠올랐나.

▲ 유도라는 종목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내 주변에서 도와준 동료들이 많다. 동료들이 먼저 떠올랐고, 열심히 지도해 준 감독님들도 생각났다. 보답하려면 더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시청은 외출, 외박이 모두 금지됐다. 주말에도 집에 못 가고 숙소에만 머물러야 한다. 운동 끝나면 숙소에서 동료들과 영화를 보거나 야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 컨디션 관리, 경기력을 유지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 우리나라에 실업팀이 여러 팀 있는데, 수원시청은 그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 시설과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진천선수

촌만큼은 아니지만 수원시청에서도 선수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팀의 도움 덕분에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 유도하면서 대회가 이렇게 연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나.

▲ 내가 유도만 18년을 했다. 2016 리우올림픽 때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1년 넘게 대회 출전을 못 한 적이 있긴 하다. 근데 그때는 나만 경기에 출전을 못 했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대회는 열리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 선수들이 경기를 뛰지 못하니 답답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유도인으로서, 국가대표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나의 라이벌은 나 자신”

▣ 2020 도쿄올림픽 연기가 가장 아쉬운 것 같다.

▲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험하다. 대회를 치를 수 없는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 하지만 모두의 건강이 우선이다. 미뤄진 게 어떻게 보면 하늘이 올림픽을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나가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겠다.

▣ 본인이 생각하는 라이벌은 누구인가.

▲ 솔직히 올림픽에서는 누가 금메달 후보라고 말할 수 없다. 올림픽 메달은 실력만으로 가질 수 없다. 운도 필요하고, 모든 게 잘 따라와야 한다. 진짜 나의 라이벌은 나자



신이다. 진짜 힘들 때 훈련을 열심히 해서 실력을 더 향상시켜야 한다. 힘듦을 이겨내야 하는 건 나 자신이다. 그래야 어느 선수를 만나도 이길 수 있다.

▣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100kg이하급 선수들은 대부분 키가 크기 때문에 업어치기를 구사하는 선수가 많아 없다. 하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 거기(업어치기)에 맞춰 훈련을 했다. 국제 대회에 나가면 나의 업어치기 때문에 거구 선수들이 힘들어한다. 지금처럼 상대를 계속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력을 상승시키고 상대를 지치게 할 체력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게을리하면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매 훈련과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훈련 한 번 한 번에 간절함을 갖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 국제 대회에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부담감이 크지 않나. 최근 한국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A 국제 대회에 나가면 당연히 긴장된다. 또 한 서양 선수들이 잘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량을 따라 올 나라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피지컬은 많이 부족하지만 실력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아직 국제 대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없고, 성적이 안 따라올 뿐이다. 국제 대회에서 자신감만 쌓는다면 한국 유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 자신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A 정말 말하기 힘들다. 한국 선수들이 정말 까다롭다. 진천선수촌에 같은 체급 2~3명이 들어오는데 정말 쉽지 않다. 매 국내 대회에서 만난다. 서로의 플레이가 간파되어 많이 힘들다. 100kg이하급 경우,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 쉬운



선수는 정말 단 한 명도 없다. 한국 선수들은 훈련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한 체급 낮춰 꽂피운
조구함의 유도 인생

▣ 조구함 선수의 말처럼, 한국 선수들의 훈련량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A 지금도 나뿐만 아니라 훈련을 게으르게 하는 선수가 없다. 도쿄올림픽이 미뤄지긴 했지만 1년은 금방 지나간다.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데에는 경기만 한 게 없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완화되어 경기를 뛰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 주에 시합이 열려도 바로 뛸 수 있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겠다.

▣ 지금 시기에 체중 관리하는 게 비시즌 때 보다 더 힘들 것 같다.

A 맞는 말이다. 사실 체중 관리와 관련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사실 내가 2013년까지는 100kg이상급에서 뛰다가, 2013년 말부터 100kg이하급으로 체급을 옮겼다. 전 세계 유도 선수를 통틀어 체급을 하향 조정해 뛰는 선수는 나밖에 없을 것이다. 100kg이상급에서 계속 뛰기에는 신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급을 낮췄다. 체중을 빼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웃음). 그래도 지금은 정해진 체중 안에서 몸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는 하루 딱 정해서 먹는 편이다.

▣ 단기간에 살을 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A 내가 5주 만에 20kg을 감량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팬분들에게 SNS 메시지가 많이 왔다. 그렇지만 나의 다이어트 방법을 일반인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당시 인생과 꿈이 달려있는 절실한 상황이었다. 좋은 성적을 얻기도 했지만 근손실도 많이 오고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의 이런 소중한 경험을 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했다.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꾸준히 운동하는 것뿐이다. 체중 감량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 한 체급을 낮춘 게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나.

A 그렇다. 나의 유도 인생은 체급을 낮추기 전과 후로 바뀐다. 체급을 낮춰 유도 선수로서 많은 행복을 느꼈다. 올림픽도 출전했고,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도 땄다. 이제는

도쿄올림픽에서 메달만 따면 된다.

“올림픽 금메달 정말 갖고 싶다”

▣ 올림픽 메달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니, 메달에 대한 간절함이 보인다.

A 올림픽 금메달을 정말 갖고 싶다. 너무 갖고 싶다. 어떻게 해야 메달을 따는지 알고 있어 더 절실히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금메달이 내 인생의 최대 목표는 아니다. 주변 많은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신다.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유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나에게 슬럼프가 오고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못 땄을 때 받았을 초조함에 대해 조언을 많이 해주신다.

▣ 조구함에게 올림픽 메달이란 무엇인가.

A 선수는 올림픽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금메달에 목숨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금메달에 너무 압박감을 느끼면 몸이 경직되고 자기 실력이 안 나올 수 있다. 진천선수촌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많이 지도 받는다. 앞으로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잘 살려 내 실력을 다 발휘하고 싶다.

▣ 스스로에게 한 마디 남겨보는 거 어떤가.

A 갑자기 말하려니 긴장된다(웃음). 음… 구함아, 도쿄올림픽에 가서도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려오자.

▣ 마지막으로 유도인과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A 최근 유도 인기가 많아졌다는 게 실감이 난다. 유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뿐 듯하고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유도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다. 많이 답답하지만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이겨내길 바란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유도장에서 다시 뛰길 희망한다. ㉙

‘유도인의 축제’ 2020 유도인의 밤 열려

조구함 2년 연속 최우수선수상 수상



대 한유도회가 1월 29일 서울 강동 KDW에서 김진도 대한유도회장, 조재기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유도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경자년을 맞이하는 유도인들의 신년 하례회를 겸하는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지난해 한국 유도를 빛낸 이들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조구함은 대한유도회가 선정한 2019년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전년도에 이어 2연속 수상이다. 조구함은 지난해 2월 2019 파리그랜드슬램과 뉴질랜드 그랜드슬램 은메달을 시작

으로 5월 후허하오터 그랑프리, 10월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에서 잇달아 금메달을 수확하는 기쁨을 맛봤다.

이밖에도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우수 선수 7명, 초중고 우수선수 3명, 우수단체 10팀, 우수지도자 10명, 시도지부 유공자 18명, 모범심판 3명도 표창했다.

대한유도회는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수 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씩씩하게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철원 세 쌍둥이 형제 전민성, 전민균, 전민형(군신 철원초)에게 각각 특별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하며 희망을 안겼다. 세 쌍둥이는 SBS

‘영재발굴단’과 KBS 인간극장 ‘삼동이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국민과 유도인들에게 감동을줬다.

김진도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금의 한 국유도를 이끌어가고 지탱하고 있는 근원은 전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유도인 여러분들”이라며, “유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한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올림픽에서 우리의 노력이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회, 지도자,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우수선수상(경기상) 수상자들.
사진 왼쪽부터 임보영, 이은결,
김민종, 김임환, 김원진, 곽동한,
김성민, 한미진.



이무희 한국초중고유도연맹 회장(사진 가운데)과 경기상 부문 초·중·고 우수선수상 수상자들. 사진 왼쪽부터 신유미, 백두산, 이남훈, 박세은.

2019년도 표창대상자 명단

| 구분 | 인원 | 대상자 |
|----------------|-----|--|
| 경기상 (최우수선수) | 1명 | 조구함(수원시청) |
| 경기상 (우수선수) | 8명 | 한미진(충북도청), 김원진(국군체육부대), 이은결(보성고), 김성민(블루나눔필록스) 김임환(한국마사회), 임보영(용인대), 곽동한(하이원), 김민종(용인대) |
| 우수선수상 | 4명 | 신유미(보목초), 백두산(아음중), 이남훈(주산산업고), 박세은(경기체고) |
| 경기상 (우수단체) | 10팀 | [여초부] 신철원초 [남초부] 동남초 [여중부] 경북체중 [남중부] 보성중 [여고부] 경기체고 [남고부] 경민고 [여일반부] 안산시청 [남일반부] 부산광역시청 [여대부] 한국체대 [남대부] 용인대 |
| 지도상 | 10명 | [여초부] 김관주 [남초부] 홍다미 [여중부] 윤재순 [남중부] 백승엽 [여고부] 정태호 [남고부] 오승용 [여일반부] 이옹호 [남일반부] 이준희 [여대부] 조민선 [남대부] 장성호 |
| 공로패 | 19명 | [서울] 홍대희 [부산] 주영길 [대구] 심은보 [인천] 권혁만 [광주] 신대철 [대전] 오승영 [울산] 김도형 [경기] 김광현 [강원] 장덕범 [충남] 강태봉 [충북] 이영일 [전남] 김상철 [전북] 박미자 [경남] 이정렬 [경북] 이성탁 [제주] 정영수 [초·중·고] 인농교 [대학] 이승경 [설립] 노보성 |
| | 3명 | 구상희(원광고), 강선기(대구시유도회) / (본심판) 석길영(학성직업훈련소) |



2020 유도인의 밤 행사 전경



2020 유도인의 밤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떡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지도자상 수상자인 장성호 용인대 감독이 시상자 김도준 대한유도회 부회장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여대부 우수단체상을 수상한 한국체대 조민선 감독과 시상한 선찬 종 대한유도회 전무이사.



박희찬 대한유도회 부회장(오른쪽)이 시도지부 유공자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유도회 심은보 이사에게 공로패를 시상하고 있다.

모범심판에 대한 공로패 시상. 모범심판상을 받은 석길영 심판(왼쪽)과 시상자 문원배 동아시아유도연맹 심판위원장.



정학군 전 부산시유도회장이 오랜만에 유도인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사진 가운데).



김정행 대한유도회 명예회장(사진 가운데)과 김진도 대한유도회장(사진 오른쪽),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사진 왼쪽)이 건배를 하고 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체육회 간볼트 회장(사진 오른쪽)이 2020 유도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간볼트 회장을 반기는 김정행 명예회장(사진 왼쪽)과 조용철 대한유도회 상임부회장(사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세계 최고선수로 성장하라’

유도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김현태

‘후보’. 언제든지 주전들의 무대로 올라설 수도 있지만, 당장은 미완의 대기로 기다림이 공존하는 자리다. 하나, 이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언젠가 자신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날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후보선수들의 비상을 조력하는 든든한 지도자도 함께한다. 지난 2017년부터 유도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을 육성해온 김현태 전임지도자는 한국 유도의 재도약을 꿈꾸며 제자들에게 온 힘을 쏟고 있다.

▣ 어느덧 후보선수들을 지도한지 4년차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은 어떠셨나요.

A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을 맡기 전까지 대학교 감독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대학 감독을 할 당시에도 코치로서 후보팀을 종종 찾았는데, 또 다른 재미가 있었죠. 우선 후보팀은 국가대표팀처럼 1년 가까이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여름과 겨울에 각각 20

일 정도, 그리고 한일 교류를 위해 일주일 씩 파견을 가기도 하거든요. 선수들도 고등 학생에서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연령으로

정도 있어요. 약 34개 종목에 대해 지도 중 인데, 아무래도 여자축구를 제외하고는 프

로스포츠 종목에는 존재하지 않아보니 생 소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청소년대표팀 같은 느낌이에요. 다만, 예전에는 나이제한 없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를 했던 선수들이 존재했죠. 행여나 대표팀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언제든지 불러 올릴 수 있도록

▣ 사실 국가대표 후보선수라는 명칭이 대소 생소하기도 한데요.

A 국가대표 후보선수 지도자가 총 40명

이뤄져서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 지금 후보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선

수는 어떤 선수들인가요. 대표팀 선수들도 각 체급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올림픽을 위한 최종선발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안바울, 안창림, 곽동한, 조구함 등은 어느 무대에 내놔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둔요. 또, 남자 헤비급 김민종 선수는 대학교 1학년때인 작년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땄어요. 유망주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한국 유도의 국제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수도 있나요.
A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느낌을 주는 선수가 가끔 있어요. 남자선수가 총 8개 체급으로 나뉘는데, 전체적으로 각 3명씩은 나중에 대표팀이 돼서도 국제대회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선수들이 있죠.

다만, 현재로서는 여자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어요. 청소년 세계대회를 출전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악해진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도 여자선수 쪽은 최근에 재일교포로 합류해 가능성은 보이는 선수들도 있어요. 아직은 어리기에 훗날 올림픽 메달도 노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 후보팀을 맡으신 이후로 지도자로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면요.

A 현재 대표팀을 보면 후보팀을 거쳐 간 선수들이 95% 이상이에요. 연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거죠. 올림픽이 다가오면 대한유도회의 요청으로 대표팀 선수들도 가르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후보팀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토론도 많이 해요. 궁극적으로는 후보팀 선수들이 대표팀에 승선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그렇다면, 현재 한국유도의 국제경쟁력은 어떤 상태인가요.

A 지금 대표팀 선수들도 각 체급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올림픽을 위한 최종선발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안바울, 안창림, 곽동한, 조구함 등은 어느 무대에 내놔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둔요. 또, 남자 헤비급 김민종 선수는 대학교 1학년때인 작년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땄어요. 유망주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한국 유도의 국제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 지금 후보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선

수도 있나요.

A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느낌을 주는 선수가 가끔 있어요. 남자선수가 총 8

개 체급으로 나뉘는데, 전체적으로 각 3명씩은 나중에 대표팀이 돼서도 국제대회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선수들이 있죠. 다만, 현재로서는 여자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어요. 청소년 세계대회를 출전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악해진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도 여자선수 쪽은 최근에 재일교포로 합류해 가능성은 보이는 선수들도 있어요. 아직은 어리기에 훗날 올림픽 메달도 노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 조금 더 선션을 멀리 뒤 볼까요. 전임지도자로서 후보선수들에게, 또 앞으로 후보선수가 될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A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 선수들이 대학생만 되면 노는 쪽에 시선이 많이 돌아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선수 생활이 끝나면 얼마든지 실컷 놀 수 있다고 운동에 집중을 하도록 하죠.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운동을 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다 후회하는 선수들도 봤어요. 저도 ‘선수 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란 후회도 하는 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후보팀을 거쳐 대표팀을 가더라도 절대 만족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라고요. 꿈을 위해서는 뭔가 하나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잖아요.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서의 최종 목표가 듣고 싶습니다.

A 당장 내년에는 도쿄올림픽도 있고, 앞으로 세계대회는 계속 열리잖아요. 최근 들어 한국유도가 약해졌다는 평가도 적잖이 들리는데, 제가 지도하는 후보선수들이 대표팀까지 올라가 메달을 따고 한국 유도의 부흥기를 다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의가 최우선이에요.
유도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성이 갖춰져야 해요.



한국 유도의 뿌리를 튼튼하게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최승엽

최승엽 유도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는 20 대 중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유도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 왔다. 선정고, 마산대를 거쳐 경남도청 유도팀을 이끌고 있던 그는 올해부터 청소년 대표 전담지도자가 됐다.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 한국 유도를 위해 힘쓸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둔 최승엽 지도자. 그가 바란 한국 유도의 미래는 무엇일까.

▣ 정말 오랜 시간 지도자로서 활약했다. 그러나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는 생소한 자리일 것 같다.

A 선정고를 시작으로 마산대, 경남도청까지 지도했지만 중학교 선수들은 처음 만나본다.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하는 어린 선수들인 만큼 이미 성장한 선수들을 지도할 때와는 모든 게 새로운 느낌이다. 또 배울 점도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씩 알아가야 할 것 같다.

▣ 청소년 대표 전담지도자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

A 한국 유도는 총 4개로 분류된다. 초등학교는 꿈나무, 중학교는 청소년, 고등학교는 국가대표 후보, 그리고 최상위에 국가대표가 존재한다. 중학교, 즉 청소년 단계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이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요즘은 운동은 물론 선수들의 인성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시기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럴 때 일수록 어린 선수들은 훈련되는 만큼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쓰게 됐다.

▣ 경남도청 감독과 청소년 대표 전담지도자를 겸직하게 된 것은 부담스럽지 않나.

A 보통 다른 분들을 보면 겸직하는 데 있어 큰 문제를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는 1년에 한 번 정도 20 일간 합숙 훈련을 갖고 국제대회 출전 정도가 전부다. 주변에서도 실업 팀을 이끄는 것에 큰 지장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 나 역시 걱정은 없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과감히 한 쪽을 포기할 생각도 하고 있다.

▣ 중요한 위치에 섰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정식 활동은 어려워졌다. 많이 허탈할 것 같은데.

A 2020년 들어 유도 경기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국가대표 선발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유도회는 8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소년체전은 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여서 걱정이 크다. 이렇게 되면 선수들은 동기부여를 잃고 도태될 수 있다. 또 진학 문제가 겹친 고등부 선수들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도쿄올림픽은 이미 랭킹 포인트로 어느 정도 무마가 되는데 다른 부분이 전부 애매한 상태다.

▣ 공백기가 길어지면 선수들의 목표 의식 또한 사라질 수 있다.

A 실업 팀 선수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 친구들은 경기가 곧 돈이 된다. 계약 기간이 여유로운 선수들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당장 내년에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는 선수들은 입장이 다르다. 국가대표도 마찬가지다. 여러 대화를 통해 합숙 및 훈

만 말이다. 유도를 하는 팀, 그리고 선수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운동을 그만두는 선수들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처럼 운동 하나에 모든 걸 거는 시대가 아닌 만큼 여유모로 과도기를 지나는 느낌이다.

▣ 그렇다면 어린 선수들 중 유망주를 찾기도 힘들 것 같다.

A 솔직히 말하자면 올해 한 번도 선수들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 냉정한 시선으로 보면 과거처럼 경쟁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특출난 몇몇 선수들이 유망주로 꼽히고 있다. 옛날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한다.

A 지금처럼 중심을 잊기 쉬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운동 외적인 부분을 잘 살펴줬으면 한다. 과거처럼 운동만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라면 인성과 학습 역시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에 나오더라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정리했으면 한다.



사회에 나오더라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정리했으면
한다.

련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계획에서는 올려놨지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 한국 유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스포츠들과 마찬가지로 선수 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고 들었다.

A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조금 큰 편이다. 그런 일본도 생활체육을 고집했다가 크게 훈들린 적이 있지 않나.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클럽식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지

만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계획에서는 올려놨지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 한국 유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스포츠들과 마찬가지로 선수 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고 들었다.

A 한국 유도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만들 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 유도를 무작정 비판,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바라는 부분은 있다. 다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부족한 건 연구하는 모습이다. 여러 측면의 시선을 통해 유도를 연구했으면 한다. 사견에 불과하지만 만약 현실이 된다면 한국 유도가 한 발 더 나아간 게 아닐까 싶다. ☺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임희대는 유도계에서 뛰어난 인품을 가진 지도자로 유명하다. 그에게 지도를 받은 많은 꿈나무들은 자신들의 부모에게 임희대 감독 칭찬을 늘어놓는다. 임희대 감독은 유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성이다. 임 감독은 아이들이 유도를 통해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임희대 감독이 꿈꾸는 유도 유토피아는 무엇일까. 임 감독이 말하는 유도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 못하는 ‘현재’ 지혜롭게 활용하면 ‘미래’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대회는 물론이고 국제 대회도 ‘올 스톱’된 상황이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제91회 YMCA 전국유도대회마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됐다. 임희대 감독은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은 정말 무슨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대회 개최도 하지 못하니 안 타깝다. 그저 시간만 흐르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정부는 계속해서 생활방역과 함께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상대와 삶이 부대끼는 유도는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는 운동이다. 그렇다 보니 대회 개최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희대 감독은 “대한체육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라고 바랐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다면 7월 7일부터 열리는 2020 양구평화컵전국대회가 올해 첫 대회가 된다.

컨디션 관리가 힘든 지금 이 시점이 선수들에게는 유도 인생의 큰 변화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임희대 감독은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유도계에 변화가 올 것 같다. 체급을 올리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유도를 그만둔 선수도 생길 수가 있다. 그동안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들은 지금 개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어 임희대 감독은 이럴수록 주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감독은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상황이다. 지금의 꿈나무들은 지금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어리기 때문에 놀고 싶은 욕심이 클

것이다. 하지만 이때 운동 안 하고 놀고, 포기하면 평생 유도를 하지 못할 것이다. 기회는 본인이 잡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희대 감독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기량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재능만 믿는 ‘재능파선수’가 결국에는 끝까지 땀 흘리며 훈련하는 ‘노력파’선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임희대 감독의 지론이다.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노력파 스타가 배출되고 있기도 하다. “매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시기에 남들과 똑같이 훈련해서는 성공 못 한다. 2~3배 이상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실력만 믿고 자만하는 선수도 있다. 자만하는 선수는 결국 성공을 못 한다.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이 똑같은 상황이다. 이 시간을 누가 더 지혜롭게 활용느냐가 중요하다.”

인성 교육을 중시하는 지도자

임희대 감독이 눈여겨보는 유망주 트리오가 있다. 73kg이하급 이은결, 81kg이하급 이준환, 90kg이하급 이남훈이 주인공이다. 이은결은 지난해 순천만대회, 용인대총장기, 청풍기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청소년 유도대회까지 국내 및 국제 대회를 모두 휩쓸 선수다. 이남훈은 일명 ‘도장 깨기’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43kg, 48kg, 51kg이하급을, 중학교 때는 48kg, 51kg, 55kg, 60kg, 66kg이하급을 석권했다. 고등학교에 넘어와서는 73kg, 81kg, 90kg이하급을 우승. 도합 9체급을 석권했다. 이준환도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81kg이하급 금메달을 땄다. 장차 대한민국 유도계를 이끌 세 선수다. 임 감독은 “세 선수가 도쿄올림픽은 몰라도 2024 파

리올림픽에서는 일을 낼 것 같다. 특히 유도 단체전에서 메달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임희대 감독은 이준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터뷰를 이어갔다. “이준환은 청소년 대표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상비군 경험이 있다. 내가 청소년 대표 감독을 할 때 준환이에게 했던 말이 ‘너는 충분히 국가대표 자격이 있다. 나중에 국가대표에서 보자’라고 말했다. 장차 81kg이하급을 이끌 재목이다.”

최근 여자 유도계는 침체기다. 국제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올해 열린 세 번의 국제 대회에서 단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했다. 임희대 감독은 “특출난 선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

OO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성이다.
실력이 좋더라도
인성이 좋지 못하다면
진정한 유도인이
될 수 없다.**



며 두 선수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 바로 한국체대 김하윤, 대구체고 박샛별이다. 두 선수 모두 중량급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임 감독은 “김하윤은 지난해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우승하지 않았나. 해비급을 이끌 선수다”며 “대구체고 박샛별도 미래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임희대 감독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성이다. 실력이 좋더라도 인성이 좋지 못하다면 진정한 유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감독은 “김정행 대한유도회 전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1등 선수여도 인성이 좋지 않으면 쓰지 마라. 차라리 인성이 좋은 5, 7위 선수를 써라’라고 말씀하신다. 인성이 갖춰진 선수들은 결국엔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임희대 감독은 훈련도 중요하지만 유도를 통해 아이들이 ‘예시예종(禮始禮終)’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는 인성 교육을 중시하는 지도자다. 대한유도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나에게 꿈나무 선수들을 맡기지 않았겠나. 아이들에게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예를 들어 인사를 건성으로 하거나, 신발을 꺾어 신는 등 예의를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주위 부모님들도 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앞으로도 나의 유도 철학은 ‘인성이 우선시되는 유도’다.” 임희대 감독은 인성과 예의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며 자신의 유도 철학을 보여줬다.

임희대 감독은 끝으로 자신의 제자들이자 유도 후배들에게 한 마디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임 감독은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다. 유도 시작했을 때 가진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 잡아준 목표를 향해 나와 함께 정진해 보자, 아이들아”라고 웃었다. ☺

'삼동이' 전민성-전민현-전민균

국가대표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할래요



조준호-조준현은 한국 유도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쌍둥이 유도 선수였다. 하지만 쌍둥이가 아닌 세쌍둥이(삼동이) 모두 유도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신철원초에 재학 중인 일란성 쌍둥이 맨형 전민성, 둘째 전민형, 막내 전민균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SBS '영재발굴단', KBS '인간극장' 프로그램에도 나와 화제를 모았다. 초등 유도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래의 국가대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철원의 유명 인사, 삼동이 외조부모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삼동이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강원도 철원에서는 유명 인사다. 이들을 가르치는 신철원초 고종훈 코치는 “이미 철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애들도 그런 부분에 부담감 없이 웃으면서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들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삼동이 모두 “우리를 알아봐 줘서 아직도 신기해요”라고 입을 맞췄다.

이들은 유치원 체육시간 때 처음으로 유도를 접했다. 그러나 2016년, 초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유도를 시작했다. 전민성 군은 53kg이하급, 전민형 군은 43kg이하급, 전민균 군은 65kg이하급에서 뛰고 있다. 대회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첫째 전민성 군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 2019 제주컵 국제 유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동체급 최강자다.

삼동이에게도 좋은 일만이 가득했던 건 아니다. 한 차례 시련이 있었다. 2017년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외할머니 김현숙 (62) 씨와 외할아버지 김기옥(72) 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김현숙 씨와 김기옥 씨는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 힘든 일, 안 힘든 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한다. 일찍 철이 든 삼동이는 벌써부터 외조부모에게 효도할 생각을 갖고 있다. 고종훈 코치도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 크다”라

고 이야기했다. 민성 군은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께는 전동 자전거를 사줄래요”라고 말했고, 민균 군은 “어른이 되어서 할아버지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민형 군 역시 “효도만이 답이에요”라고 어른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삼동이는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꾼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회 개최는 물론이고 훈련 환경조차 갖추는 게 힘들었다. 고종훈 코치 역시 “상반기에는 훈련을 거의 못 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나마 체육관 개방이 어느 정도 허용되면서 잡기 훈련 정도는 하고 있다. 하지만 예년만큼 많은 운동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운동을 하는 선수라면 누구나 국가대표를 꿈꾼다. 삼동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체육관을 못 쓰는 상황에도 개인 운동을 하면서 미래의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꿨다. 룰모델 역시 정해놨다. 민성 군은 남자 73kg이하급 안창림(남양주시청), 민형 군은 여자 52kg이하급 정보경 (안산시청), 민균 군은 남자 60kg이하급 김원진(국군체육부대)이 룰 모델이다. 이들의 룰 모델들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한국 유도를 빛내는 선수들이다. 참고로 김원진은 신철원초 출신이다. 삼동이 역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오늘도 훈

련에 매진 중이다. 하지만 국가대표는 아무나 될 수 없다. 자신의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해야만 한다. 삼동이는 자신들의 장단점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민성 군은 “저는 여러 가지 유도 기술을 잘 알고 있어요. 시합할 때마다 다양하게 여러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에요”라고 말했고, 민형 군은 “아무래도 발기술과 스피드 만큼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다. 민균 군은 “예전에는 힘이 약했어요. 그런데 체급을 올리고, 몸무게가 늘어나 보니 힘이 세진 느낌을 받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단점에 대해서도 한 마디 보탰다. 민성 군은 “아직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훈련 시간에도 체력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라고 전했고, 민형 군은 “저 역시 힘이 부족해요. 균형 운동을 신경 쓰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민균 군은 “상체 힘은 세졌지만 아직 다리 균력이 부족해요. 하체 운동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봐요”라고 웃었다. 올해를 끝으로 신철원초를 졸업하는 삼동이는 인근 신철월중으로 진학해 유도를 계속할 생각이다. 이들도 “다른 지역에서 유도를 하는 것은 꿈도 안 꿨어요. 이사도 해야 되고, 집이랑도 멀어지기 싫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조부모에 대한 애틋함을 보였다. 삼동이의 가장 큰 목표는 당연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철원군을 빛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유도 선수가 되는 게 꿈이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운동하는 장면이 나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전민성, 전민형, 전민균. 유도를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미래의 국가대표가 되어 외조부모에게 효도하는 날이 찾아 오길 계간 <柔道> 가 기다리고 있겠다. ●

글 이정원 기자
사진 한필상 기자

유도 지방화 시대(9) - 경기도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면서 스포츠도 빠르게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경기가 읍·면 단위 소도시에서 빈번하게 열리고 지방 팀들의 성적도 몰라보게 향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유도다. 지역별로 뚜렷한 실력 편차를 보이던 경기력도 어느 사이 평준화되었고 특정시도가 독식하던 각종 대회 메달도 이제 골고루 나눠 갖고 있다. <柔道>지는 차례로 각 지방 유도회를 찾아가 그 지역 회장을 인터뷰하고 지역 팀과 유도장 팀방을 통해 실력 평준화의 실상을 분석해본다.

| 경기도 유도현황 | | |
|----------|----|-------|
| 구분 | 팀 | 인원(명) |
| 초등학교 | 15 | 70 |
| 중학교 | 17 | 90 |
| 고등학교 | 15 | 185 |
| 대학교 | 8 | 117 |
| 실업팀 | 8 | 38 |
| 유도관 | 92 | - |

※ 대한유도회 등록 기준

“노력과 소통으로 경기도에 힘을 보탭니다”

경기도유도회 서정복 회장

경기도유도회 서정복(75) 회장은 지난 2017년 경기도유도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서정복 회장은 한국 유도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 중 하나다. 제자들과 함께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을 제패하며 전 세계에 한국 유도의 위대함을 알렸다. 이제는 지도자 생활을 뒤로하고 경기도 유도 발전을 위해 나선 서정복 회장을 지난 6월 18일 서 회장의 모교인 경민고에서 만났다.



경기도유도회 단합이 만든

전국체전 21연패

국가대표로 위상을 드높인 선수 가운데서 서정복 회장의 손을 안 거쳐간 이가 없을 정도로 서정복 회장은 한국 유도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다.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감독, 2004 아테네올림픽 국가대표 코치,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감독,

2012 런던올림픽 국가대표팀 감독, 2016 리

우올림픽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한국 유도를 위해 힘써왔다. 하지

만 지도자와 집행부는 염연하게 다른 위치

다. 해야 되는 역할도 다르다. 서정복 회장이

경기도유도회 회장직을 맡은 이유는 무엇일

까. 서 회장은 “지도자 육성 체계를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는 주위의 권유가 있었다. 또한

선수 육성을 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하더라.

김정행 전 대한체육회 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경기도 유도 발전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답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사실 서정복 회장은 선수 시절을 화려하게 보내지 않았다. 서 회장은 1977년 결혼을 한 뒤 곧바로 은퇴했다. 그리고 1978년부터 경민고에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 회장은 “화려한 선수 생활을 못 했기에 지도자로서 더 욕심이 있었다”라고 옛 시절을 회상하며 “나를 거쳐간 제자들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내가 다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남자 95kg이하급 은메달리스트 김민수, 2014 인천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방귀남, 2012 런던올림픽 남자 90kg 이하급 금메달리스트 송대남이 그의 제자들이다.

이들 외에도 많은 경기도 출신 선수들이 한국 유도를 이끌고 있다. 안창립, 안바울(남양주시청), 조구함(수원시청), 정보경(안산시청) 등이 현역 국가대표로 활약 중이다. 특히 경기도유도회는 지난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유도 종목 21연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서정복 회장은 제100회 전국체전을 통해 경기도 유도의 단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제100회 전국체전은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줄 알았다. 개최지에 들어가는 기본 점수가 있지 않나. 만약에 연속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회장직을 내려놨어야 했다”라고 웃은 서 회장은 “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경기도 유도는 하나로 뭉쳐 이겨냈다. 실업팀, 고등학교 선수들은 물론이고 코치진, 원로 분들까지 모두가 하나로 뜰뜰 뭉쳐 유도 종목 21연패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아마 중간에 한 번 우승을 내주지 않았다면 38연패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연신 웃었다. 경기도 유도가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비결로는 ‘소통’을 들었다.

실업팀 창단, 은퇴 선수 진로 개척
서정복 회장은 할 일이 많다

경기도에는 유망주들이 많다. 특히 남자 81kg이하급 이준환(경민고)은 벌써부터 국가 대표 상비군으로 뽑히는 등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준환이는 노력을 많이 한다. 신체적인 조건도 뛰어나지만 정신력도 있고, 우승을 해야겠다는 집념을 가진 남선수다”라고 말했다. 전국체전 제폐, 유망주들의 성장, 현역 선수들의 국위 선양 등 서정복 회장에게 좋은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에게도 고민은 많다. 가장 큰 고민은 선수 수급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 실업팀 수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 뛰는 선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서정복 회장은 “경기도에서 키운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 가서 뛸 때가 가장 가슴 아프다. 다른 팀에 가서 잘 보면 몰라도 못 크는 경우도 많다. 이들이 좌절하고, 큰 선수가 되지 못하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아쉬워했다. 서정복 회장은 의정부 내에 실업팀을 창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 회장은 “의정부는 많은 선수들을 배출한 도시다”라며 “현재 안병용 의정부 시장님뿐만 아니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도 실업팀 창단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 경기도 내에 실업팀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선수 수급이 조금이라도 원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정복 회장은 실업팀 창단뿐만 아니라 은퇴 선수들의 미래 프로그램도 적극 구상 중

“노력하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서정복 회장이 경기도 유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노력’이다. 서정복 회장 역시 김정행 전 회장의 가르침 속에서 ‘노력’이란 단어를 배웠다고 한다. 서 회장은 “김정행 회장님께서 항상 ‘노력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 역시 제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노력의 대가는 자기에게 꼭 돌아온다. 선수들이 노력을 통해 많은 부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서 회장은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사람은 목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나 역시 선수로 최고가 되지 못했지만, 지도자로서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서정복 회장은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한 대신 아내와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자녀들 모두 교수,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최고의 가족과 함께 서 회장은 선수 육성, 인성이 바른 지도자 육성 그리고 경기도 유도 발전에 힘을 쓸 예정이다. 서 회장은 “나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 선수 생활을 못 했어도 지도자로 정점을 찍었기에 후회는 없다. 이제는 최고의 선수들을 육성하고, 인성이 된 지도자를 만들고, 경기도 유도인들이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쓸 예정이다”라고 웃었다.

끝으로 서정복 회장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노력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노력 후 얻은 승리의 쾌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유도인의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 나 역시 유도인들과의 소통으로 경기도 유도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다짐했다. ❸

전국 최고의 유도 명문교를 꿈꾼다

‘경기도 유도의 자존심’ 경민중·고등학교 유도부



경기도 북부도시인 의정부가 오래전 유도로 반짝 빛을 본건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장은경이 한국유도 사상 첫 은메달을 획득했던 때였다. 장은경이 의정부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인연 때문이었다. 사실 의정부에서 유도는 그 보다 먼저 씨앗을 뿌렸다. 경민중과 경민고가 약 40여년전 유도부를 창단하며 한국유도의 미래를 키우고 있었다. 경기 남부에 비봉고가 있다면 경민중·고는 이제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유도 명문학교로 성장했다.

불모지에서 성장해

100회 전국체전 휩쓸다

경민중·고등학교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자리한 사립학교다. 1968년 경민중이 먼저 개교한데 이어 1971년 경민고가 개교했다. 현재 전국을 호령하고 있는 경민중·고 유도부는 경기도 유도회 서정복 회장(1회 졸업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1978년 경민중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유구한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서 회장이 경민중에 처음 부임했을 때만해도 운동부에 대한 인식이 좋았던 시절은 아니었다. 하지만 체육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의정부에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학생들에게 심어야 한다는 철학과 함께 제대로 된 유도 팀을 육성해보자는 뜻으로 경민중 유도부를 만들게 되었다.

우여곡절 속에 유도부를 출범시킨 경민중은 창단 1년 만에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

한 성적을 거두었다. 경민중 유도부가 쏘아 올린 기운은 같은 재단에서 운영 중인 경민고, 경민여상(현 경민비지니스고)에 전달됐다. 고교 유도부를 연이어 창단하면서 오늘 날 경민중·고 유도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민중·고 유도부는 창단 초기부터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물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경민재단(이사장 홍문종)을 비롯한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경민중·고는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육성하며 유도 명문학교로 도약했다.

경민고는 초창기에 실업계와 인문계가 구분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유도부 학생들은 수업은 따로 듣고 운동을 같이 해야 했다. 당시 유도팀을 총괄했던 서정복 회장은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뒤 운동을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도 명문고 반열에 오른 경민고는 2018년 순천만정원컵 대회를 시작으로 고공행진에 나섰다. 이때부터 2019년 전국체전에 이르기까지 매 대회마다 체급별 우승과 단체전 우승, 준우승을 거두며 이제는 당당히 한국 유도의 유망주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경민고는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전국에 경민고 유도의 명성을 알렸다. 현재 용인대에 재학중인 60kg이하급 하정우와 81kg이하급 이준환(3학년) 등 네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정우와 이준환은 시즌 4관왕에 오르며 경민고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리기도 했다.

**40년 역사 속 자랑스런 경민 유도인
올림픽 금메달부터 시즌 4관왕생까지**
경민 출신 유도인들은 숫자로 셀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올림픽에서 한국을 빛낸 유도인도 적지않다.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 김민수가 대표적인 경민 유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갈 후배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2019년 남고부 81kg이하급에서 4관왕에 오른 이준환은 이제 한국유도의 미래를 밝힐 재목으로 성장했다. 일부 지도자들은 이준환을 보며 이미 고교 수준 이상의 실력이며 경험만 쌓이면 충분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선수로 자라 날 것이라고 칭찬한다.

같은 체급의 선수들과 견줘도 체격적인 조건도 모자라지 않고, 힘과 순발력 모두 뛰어나다. 특히 운동에 임하는 정신 자체가 뛰어난 선수로 올 시즌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이준환은 이미 몇차례 정상에 올랐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남고부에서 이준환이 최고의 유망주라면 여고부 63kg이하급 허슬미(경민IT고)도 기대有多大。2019시즌 57kg이하급에서 이준환과 마찬가지로 4관왕을 차지한 바 있는 허슬미는 올 시즌을 앞두고 63kg이하급으로 한 체급을 올렸다.

올 시즌 고교 무대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81kg이하급 이도윤도 기대 해볼만 선수다. 당장 선배인 이준환을 넘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지만 2019 하계 전국중·고유도연맹전 남자 중등부 81kg이하급에서 전 경기를 한판승으로 장식 할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했다. 고등부에서도 대회가 열리면 언제든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다.

이도윤이 떠난 경민중을 대표하는 선수는 여중부 70kg이상급에 나설 이혜빈(3학년)이 있다. 이혜빈은 2019 시즌 내내 단 한번 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기량을 자랑한다. 같은 체급의 선수들에 비해 신장은 작지만 기본적인 힘이 좋고, 겁 없이 경기를 펼치는 스타일로 올 시즌도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가능성을 보였던 55kg이하급 김용민과 90kg이하급 백종우도 이제는 3학년이 된 만큼 자신의 기량을 알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될 듯한 존재로 버티고 있다.

오승용 감독은 2020시즌을 앞두고 터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 감독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다. 꾸준히 훈련을 해야 기량이 늘어나는데 선수들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없었고, 개인별로 숙제를 내주긴 했지만 운동을 많이 지켜 볼 수 없었다”고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오 감독은 제자들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선수들을 강압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준 것 같다”며 제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선수들이 유도 선수 이전에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기야 말로 인성이 완성되는 시기라 생각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아는 학생선수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❷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공존 모델”

의정부시 유도회관



전국에 퍼져있는 많은 유도회관 중 의정부시 유도회관은 조금은 색다른 곳에 자리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의정부종합운동장 안에 터를 잡고 있다. 유도에 관심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유도를 전파하는데 최적의 입지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柔道>지가 의정부시 유도회관을 찾은 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호인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끊어진 유도 명맥 있다

오래 전 의정부에는 유도회관이 하나 있었는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故장은경 선생의 주도하에 유도회관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1995년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유도회관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이후 검도관으로 바뀌면서 의정부 관내에는 유도관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오랜 유도관 부재 상황은 2002년 현재 의정부시 유도회관 관장을 맡고 있는 이종명 경기도유도회 사무국장이 녹양동에서 체육관을 열면서 끝났다. 어렵사리 의정부 유도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종명 관장은 “서정복 회장님의 권유가 커 당시 의정부 내에는 초등학교 유도 팀이

없었고,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유도를 접할 수 없었던 현실이 많이 안타까우셨는지 금전적인 부분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며 체육관 재개관 당시를 설명했다.

유도회관이 다시 문을 열었으나 예상치 않은 문제도 일어났다. 과거 사용했던 의정부시 유도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다가 시의 반대에 부딪친 것이다.

그러나 이종명 관장은 경기 북부의 유도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설득에 나섰고, 결국 의정부시유도회관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도회관을 운영하는 일도 문제였다. 당시 만 해도 유도 전문 체육관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감

안한 이 관장은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태권도 도장과 마찬가지로 유아체육과 유도를 접목해서 유도회관을 운영했다. 이후에는 장애우에게도 유도를 알리며 150여명 가까이 회원 수를 늘리며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들어갔다.

의정부시유도회관은 한 차례 더 변화를 맞게 됐다. 2004년에 이 관장이 관내에 있는 금오초등학교 유도부를 지도하게 되면서 유도회관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유도회관은 자연스럽게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교류하는 장이 됐다.

2011년부터는 엘리트 선수들의 수도 늘어나면서 의정부시유도회관에서 금오초교로 금오초교에서 경민중으로 선수 수급의 연계 고리가 만들어 졌다. 이는 의정부가 경기 북부 유도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하는데 큰 힘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도를 배우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현재도 의정

부시유도회관에서 150~180명 정도 관원이 유도를 배우고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유도회관 재개관 당시 활약했던 3명의 지도자들 역시 이제는 의정부 지역에서 새롭게 도장을 운영하며 경기 북부 유도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유도 훈련은 재미있고 강하게

의정부시유도회관은 유도를 즐기는 생활체육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배움터다. ‘재미가 없으면 흥미가 되고, 흥미가 없다면 멀리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이 관장은 처음 유도를 접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 강도는 다른 유도회관과 비교해 매우 강하다. 여기에는 ‘학생은 학생답게, 운동은 운동답게 해야 한다’란 이 관장의 지

도철학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 관장은 “여러 유도관과 비교해 우리 유도회관의 훈련은 아무래도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훈련 할 때만큼은 모두가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스파르타 훈련을 고수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생활체육으로 유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연속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틀에 맞춰 유도를 가르치기보다 기술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엘리트 선수 한 명을 만드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이 유도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종명 관장 인터뷰



■ 현재 수강 인원은.

A 생활체육인만 150명~180명 정도 된다.

■ 수업 시간은

A 1일 4타임 운영한다. 2회는 생활체육, 2회는 엘리트 체육이다.

■ 수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

A 유도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흥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성인 동호인이나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부족한 기술이나 세밀한 약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다.

A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들이 아쉽다.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었는데 공부하다 유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행히 입시반 선수들은 모두 대학을 잘 갔다. 면담을 통해서, 본인들 적성에 맞게 진학을시키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다.

A 두 달 동안 문을 닫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 유도회관은 관원이 80% 이상 복귀한 편이다. 안전 수칙 철저히 지키고 있다. 종합운동장 안에 있고, 공공시설이다 보니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있다.



이종세의 인물열전⑤

“유도는 내 인생의 반려”

여규태 한국유도고단자회 회장

힘든 훈련 통해 체득한 끈기와 인화가 사회생활에 큰 보탬
빛더미 한국유도원, 흑자 재단 탈바꿈에 공헌
베꼈이 생활신조…유도 사랑 몸소 실천



서울 혜화동 대웅건설 회장실에서 밝은 표정으로 지난 80여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소회를 밝히는 여규태 한국유도고단자회 회장.

“지난 80여 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유도를 통해 체득한 끈질긴 지구력과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옥강(玉岡) 여규태(余圭泰·86) 한국유도고단자회 회장. 195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토건회사 사원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든 그는 60년 넘게 전공과는 거리가 먼 건설업에 종사하면서도 특유의 끈기와 무난한 처세로 사업을 키우는 한편 우리나라 유도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9년간 재단법인 한국유도원 이사장 직을 맡아 지금 난으로 공중 분해될 뻔한 적자 재단을 흑자 재단으로 탈바꿈시켜 후임자에게 넘겨준 것은 유도인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베풀을 생활신조로 유도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여회장을 최근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옥강빌딩 6층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몇 차례 낙상 위기를 전방 낙법으로 무사히 넘겨

▣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시면 유도와 관련해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A “무엇보다 유도가 고맙지요. 12살 때부

터 익힌 유도 덕분에 낫설고 거칠기만 한 경부고속도로나 춘천 의암댐 건설 등 공사 현장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을 은근과 끈기로 이겨냈습니다. 또 부드러움을 근간으로 하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의 유도 정신이 몸에 배 원만한 대인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 넘어져 다칠뻔한 낙상 위기를 유도 때문에 무사히 넘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근 혜화동 성당에서 새벽 미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전방(前方) 낙법으로 대응해 낙상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지요.”

여회장은 1934년 2월 6일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44번지 여호원(余鎬元) 이순옥(李順玉) 부부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이 농사와 함께 매일신문 지역과 약국도 운영하는 등 집안은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다. 1946년 춘양초등학교를 나와 영주농업중학교에 진학했고 1954년 영주농업고등학교(현 영주제일고교)를 졸업했다. 여회장은 그 해 2년제 대한유도학교 3기생으로 입학, 2년 과정을 마치고 1957년 경희대 체육학과 3학년을 수료한 뒤 4년제로 바뀐 대한유도학교 3학년에 다시 편입, 1959년에 졸업했다. 당시 졸업생은 모두 12명. 현재 여회장을 포함, 김원범, 남종선, 임병익씨와 미국에 살고 있는 김위생, 김규하씨 등 6명이 생존해있다. 서울시 유도회장을 역임했던 채중겸씨 등 6명은 작고했다.

중1때 축구하다 ‘신사 운동’ 유도로 전향

▣ **유도 입문은 언제 어디에서 하셨으며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요?**

A “유도복을 처음 입은 것은 74년 전인 1946년 봄이었습니다. 영주농업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축구부에 들어가 열심히 공을 찼는데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팀 분위기가 마땅치 않아 예의를 중시하는 유도

여규태 회장(빨간띠)이 어린 선수를 지도하고 있다.



여규태 회장(오른쪽)과 정운학 한국유도고단자회 전무

로 종목을 바꾸었지요. 당시 친구 채중겸 등과 함께 영주경찰서 유도장에서 경사(警査)였던 정재림 사범님으로부터 낙법 등 유도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일제 강점기 서울에서 유도를 수련하며 3단까지 오른 정사범님은 우리 문하생들에게는 우상과 같았습니다.”

여회장은 정 사범으로부터 밟다리후리기, 허리후리기 등을 배워 주특기로 갈고 닦았다. 고교 시절, 당시로서는 1m 75의 큰 키에 ‘통뼈’였던 여회장은 장신에서 뿐만 아니라 힘과 기술이 일품이었다고 한다. 여회장의

회고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여회장님은 방학 때 귀향해 경찰서 유도장에서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오른쪽 밟다리후리기, 왼쪽 허리후리기 등 좌우 기술을 번갈아 구사하셨다.”며 “오른쪽 기술을 피하기 위해 왼쪽 자세로 방어하려 하면 왼쪽 허리후리기로 공격하고, 반대로 왼쪽 기술을 막기 위해 오른쪽 자세를 취하면 오른쪽 밟다리후리기로 상대를 압도하셨다.”고 돌이켰다.

유도학교 교수진 호화멤버…배고팠던 기숙사 생활

▣ **본격적으로 유도를 연마한 대학 시절의 특별한 추억이나 일화가 있으실텐데요.**

A “1955년 대학과정의 대한유도학교 교수진은 말 그대로 한국유도를 대표하는 호화진용이었습니다. 1953년 개교한 대한유도학교는 초대교장으로 당시 총리였던 이범석 장군을 상징적으로 모셨고 교수진은 석진경 이제황 박정준 방영두 송광섭 박경림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여규태(오른쪽) 회장이 1990년대 초반 역시 천주교 신도 자격으로 서울 혜화동 성당을 찾은 김대중(왼쪽) 당시 민주당 총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여규태(왼쪽)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이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2018년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린 동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에서 김정행 대한체육회 명예회장(오른쪽)과 개회식을 지켜보고 있는 여규태 회장(오른쪽 두번째).



2008년 2월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여규태 회장.

씨 등 당대 내노라하는 유도인들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한국유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 111번지 중앙도장에 개설된 대한유도학교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했지요. 새벽 4시 통행금지 해제와 동시에 남산까지 뛰어 100여 개가 넘는 계단을 오른 다음 고무줄을 소나무에 걸고 잡아당기는 부딪히기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전에는 유도 이론과 영어 국어 등 교양과목, 오후에는 실기 수업. 저녁에는 정신 훈화 등 빽빽한 교육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음주, 흡연 학생을 퇴학시키는 엄격한 학칙까지 적용해 입학생 50명 중 38명이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먹는 것도 부족해 한창나이에 유난히 배가 고판던 기숙사 생활이 떠오릅니다.”

졸업후 고교 체육교사 마다하고 토건회사 입사

▣ 10년 넘게 유도를 연마하시고도 유도계를 마다하고 토건회사로 진로를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A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이제황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등록금을 면제받았는데 졸업에 즈음해 교장선생님께서 ‘강원도 원주농고에 체육교사 자리를 마련해 놓았으니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주로 갈 경우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동생의 생활비 등이 부담돼 서울에 본사가 있는 화일토건주식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어서 울면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이해해주셨습니다.”

여회장은 특유의 뚝심으로 본사 근무를 성실히 한 결과 1961년부터는 경부고속도로와 춘천의 암댐 등 전국의 공사 현장에 나가 탄탄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유도를 통해 기른 강한 체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공대 출신 동료들과의 경쟁을 이겨냈으며 이를 위해 주경아독으로 건설 전문지식을 쌓았다. 여회장은 화일토건에 입사한 지 19년만인 1978년 경서포장건설회사를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나이 44세로 독자적인 건설회사를 만들어

각종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고 14년 뒤인 1992년에는 자매회사인 대웅건설을 설립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이어 철도 레일 부설 사업에도 관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0년 대한유도회 부회장, 2008년 고단자회 회장 맡아

▣ 1960년대 중반부터 30년 가까이 건설 사업을 키우시느라 유도에 신경을 쓰지 못하셨는데 유도와 다시 인연을 맺은 때는 언제인가요?

A “1994년 서울시 사설유도장 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어 1995년에는 서울시유도회 부회장, 1996년에는 한국유도고단자회 부회장, 1998년에는 서울시유도회 회장에 선임돼 사제를 출연하는 등 미력이나마 유도계를 도왔습니다. 특히 2000년에는 모교인 용인대학의 총동창회장, 장학재단 이사장에 선임됐으며 연말에는 대한유도회 부회장직까지 맡아 김정행 용인대 총장 겸 대한유도회 회장을 직, 간접으로 지원했지요.”

여회장은 2004년 2월 적자에 허덕이던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의 14대 이사장에 취임, 수지 개선에 힘썼고 그해 8월 유도 9단에 올랐다. 2005년 1월에는 대한유도회 심의 위원장도 겸임, 2013년까지 8년간 고단자 승단 심의를 총괄하기도 했다. 2005년 3월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에 선임된 여회장은 2006년 2월 용인대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6단 이상 유단자 모임인 한국유도고단자회 회장을 맡아 13년째 이끌고 있다. 국내 6단 이상의 유도 고단자는 1100명 정도.

여의도 유도원 455억 매각…

빛 같고 송파에 새롭게 마련

여회장이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은 한국유도고단자회 회장으로서 항상 베풀의 덕목을 몸소 실천하기 때문. 중고연맹 전, 실업연맹전 등 소규모 대회에도 아낌없이 사제를 들여 타올 등 기념품을 제작해 보낸다. 구순(九旬)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경향 각지에서 열리는 유도 행사에 거의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하며 유도인들의 애경 사도 꼼꼼히 챙긴다. 그러나 여회장이 한국 유도를 위해 남긴 가장 큰 족적이라면 날아갈 뻔한 한국유도원의 건물 자산을 지켜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유도원 건물은 1975년 7월 당시 장경순 이사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5평의 대지에 완공한 2층짜리 학원 건물을 1백45억 원에 매입했다. 현재 2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건물은 연간 8억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2, 3억 원을 대한유도회와 산하 중고연맹 등의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애물단지 직자 재단 한국유도원을 흑자 재단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2011년 가을 서울 여의도 한국유도원의 마지막 모습. 세입자들이 퇴거에 불응하며 컨테이너로 유도원 정문을 막아 놓았다(사진: 이종세 제공)

이 건물이 헬스클럽을 포함한 8층짜리 빌딩으로 개축된 뒤 몇 차례 이사장이 바뀌면서 심각한 적자에 시달렸다. 은행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던 2004년 유도원 이사장을 맡은 여회장은 몇 년간 구조조정을 통한 직원 감축과 경비 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했으나 250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건물 자체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유도원 매각작업에 들어갔는데 일반 부동산 중 개업소 대신 거래가 투명하고 중개 수수료가 없는 신한은행 본점 부동산전략팀에 의뢰, 1년 넘은 작업 끝에 2010년 8월 6일 종합부동산금융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과 455억 원에 매도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도인들은 유도원 매각 저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해프닝을 벌였으나 그때마다 여회장은 매각의 당위성을 이해시켜 위기를 넘겼다. 유도인들의 반발을 무마하자 2011년에는 유도원 세입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일부 입주자는 수십 명의 용역을 동원, 계단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점포를 점거하는 등 거세게 저항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천신만고 끝에 유도원 매각에 성공한 여회장은 2011년 11월 250억 원의 은행 부채를 청산하고 서울 송파구 오금동 8층짜리 학원 건물을 1백45억 원에 매입했다. 현재 2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건물은 연간 8억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2, 3억 원을 대한유도회와 산하 중고연맹 등의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애물단지 직자 재단 한국유도원을 흑자 재단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유도계 각종 행사 애경사 참석…

후배들 따뜻한 격려

여회장은 4.19가 나던 해인 1960년 5월 1

일 한 살 아래인 조숙제(趙淑濟·85) 여사와 결혼, 3남 1녀를 두었으며 요즘에도 매월 3, 4차례 골프 라운딩을 할 만큼 건강하고 다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아호 옥강은 젊은 시절 부친께서 지어주셨다고 한다. ●



여규태 회장 약력

— 출생 1934년 2월 6일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44번지

학력 1946 봉화 춘양초등학교 졸업
1951 영주농업중학교 졸업
1954 영주농업고교 졸업
1957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3학년 수료
1959 대한유도학교 졸업
1966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시공관리학과 졸업
2000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과정 수료
2003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산업 최고위 과정 수료
2006 용인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경력 1959 (주)화일토건 입사
1978 (주)경서포장건설 대표이사
1986 범민족 올림픽추진 중앙협의회 대의원
1996 한국유도고단자회 부회장
1998 서울특별시 유도회 회장
1999-현재 (주)대웅건설 회장
2000 한국천주교 평신도협의회 회장
2000 용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2000 용인대학교 장학재단 이사장
2000 대한유도회 부회장
2004 한국유도원 이사장
2004 대한유도회 9단 승단
2005 대한유도회 심의위원회 위원장
2005 서울특별시 체육회 부회장
2008-현재 한국유도고단자회 회장

— 성훈 2008 대한체육회 최우수 공로상



남자 73kg이하급에서 우승한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의 결승전 경기.

국제 무대 중심에 서다

한국 유도 뿌리를 찾아서(끝)

여자 유도 김미정

올림픽 초대 챔피언 오르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1980년 대 이후 꾸준히 육성해 온 여자부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다.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처음 정식 세부 종목으로 채택된 여자 유도에서는 72kg이하급 김미정이 남자 선수에게 뜻지 않은 힘을 앞세워 승승장구한 끝에 결승에서 만난 일본의 다나베 요코를 3-0 판정으로 물리치고 이 체급의 올림픽 초대 챔피언이 됐다. 남자 60kg이하급 윤현은 은메달, 71kg 이하급 정훈과 78kg이하급 김병주는 동메달을 보탰다.

올림픽 종목 사상

첫 한국인 국제연맹 회장 탄생

유도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은 1995년 9월, 도쿄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선거에서 박용성 대한유도회 회장이 6년 임기의 회장에 선임된 것이다. 올림픽 정식 종목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국제연맹 회장이 탄생한 것이다. 그때까지

이 동메달을 획득해 세계 무대에 한국 여자 유도의 존재를 알렸다. 1980년 창설 대회를 뉴욕에서 연 세계여자유도선수권대회는 1987년 서독 에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때 남자 대회와 합쳐졌다.

1989년 베오그라드(옛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여자 대회로는 6번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2kg이하급 조민선, 56kg이하급 정선용이 각각 동메달을 차지하며 여자 유도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올림픽 종목 사상

첫 한국인 국제연맹 회장 탄생

유도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은 1995년 9월, 도쿄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선거에서 박용성 대한유도회 회장이 6년 임기의 회장에 선임된 것이다. 올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도 여자부 선전이 이어졌다. 66kg이하급에 출전한 조민선이 1회전부터 결승전까지 5경기를 모조리 한판으로 장식하는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데 데 이어 남자 86kg이하급 전기영은 2회전 한 경기만을 빼고 나머지 4경기를 모두 한판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유럽 챔피언인 아멘 바다사로프(우즈베키스탄)와 치른 결승전에서는 경기 시작 30초 만에 전광석화 같은 안다리후리기로 승리하는 뛰어난 기량을 자랑했다.

올림픽 종목 사상

첫 한국인 국제연맹 회장 탄생

유도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은 1995년 9월, 도쿄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선거에서 박용성 대한유도회 회장이 6년 임기의 회장에 선임된 것이다. 올

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의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일본(금 3, 은 4, 동 1)과 프랑스(금 3, 동 3)에 버금가는 종합 성적표를 받았다.

이 대회 여자 48kg이하급 결승에서는 북한의 계순희가 일본의 강자 다무라 료코를 꺾고 북한 올림픽 유도 사상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유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노골드'로 잠시 숨을 골랐다.

금메달만 없었을 뿐이지 남자 60kg이하급 정부경이 결승전에서 일본의 노무라 다다히로에게 한판으로 져 은메달을 차지했고 남자 81kg이하급 조인철은 결승전에서 일본의 다키모토 마코토에게 유효로 패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여자 63kg이하급 정성숙과 70kg이하급 조민선, 78kg이상급 김선영은 동메달 보탰다.

1980년대 후반 세계 무대로 나아간 여자 유도 1세대 격인 정성숙과 조민선은 이 대회까지 활약하며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됐다. 1987년 남녀 통합 첫 세계선수권대회(서독 에센) 48kg이하급에 출전했던 조민선은 무려 6개 체급(70kg이하급은 66kg이하급의 상향 조정 체급)에서 활약하며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2개씩 획득하는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했다.

새로운 세기

한국 스포츠의 주역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71kg이하급에서 73kg이하급으로 조정된 한국 유도 황금 체급에서 '한판승의 사나이'가 탄생했다.

이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유도 남자 73kg이하급에 출전한 이원희였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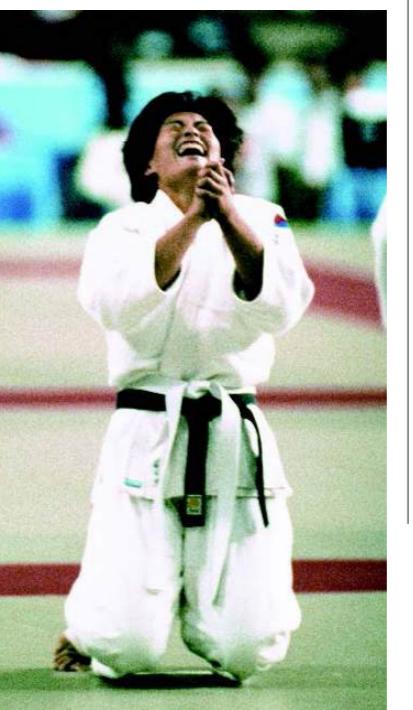
이 열리기 두 달 전에 치러진 모스크바 오픈에서 차례로 우승을 거머쥐어 아테네 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이원희는 준결승까지 4경기를 모조리 한판으로 장식한 뒤 결승에서도 러시아의 비탈리 마카로프를 1분30초 만에 누르기 한판으로 간단히 제압했다.

남자 100kg이하급 장성호 은메달, 60kg 이하급 최민호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 단 1호 금메달을 유도가 책임졌다. 개막식 다음 날인 8월 9일 남자 60kg이하급에 출전한 최민호는 1회전부터 결승전까지 5경기를 모조리 한판으로 끝내는 화끈한 승부를 펼치며 4년 전 아테네 대회 동메달을 뛰어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결승 상대인 오스트리아의 루드비히 파이셔를 들어메치기로 쓰러뜨리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남자 73kg이하급 왕기춘과 81kg 이하급 김재범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정경미는 콘택트렌즈가 빠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불같은 투혼으로 여자 78kg이하급에 서동메달을 보탰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유도는 메달박스 구실을 톡톡히 했다. 남자 81kg이하급 여자 72kg이하급 김미정이 금메달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김재범과 90kg이하급 송대남이 금메달을 차지했고 남자 66kg이하급 조준호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격(금 3, 은 2) 양궁(금 3, 동 1) 펜싱(금 2, 은 1, 동 3)과 함께 한국 선수단의 종합 5위(금 13, 은 9, 동 8) 성적을 이끌었다.

이 대회에서 안금애는 여자 52kg이하급에 금메달을 목에 걸어 1996년 애틀랜타 대회 계순희에 이어 북한 선수로는 두 번째로 유도에서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유도는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다. 두세 명의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다소 못 미쳐 남자 66kg이하급 안바울이 은메달, 90kg이하급 곽동한이 동메달을 차지했고 여자 48kg이하급 정보경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유도는 종주국을 자처하는 일본, 프랑스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세와 3파전을 이룰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도는 2021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2024년 파리 올림픽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여러 국제 종합 경기 대회에서 한국 스포츠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개막하는 제32회 도쿄 올림픽은 한국 유도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도쿄에서 열린 제18회 올림픽에서 한국 유도는 올림픽 첫 메달(김의태 동메달)을 기록했다. 유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처음 치러진 대회였다. 이후 1972년 뮌헨(당시 서독) 올림픽에서 오승립이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메달이 무척이나 소중했던 시절, 유도는 한국 스포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유도는 내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세기(世紀)' 한국 스포츠의 주역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 <끝>



본회, 몽골유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본회와 몽골유도협회가 상호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양국의 유도발전을 위해 협력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3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있었던 이번 체결식에는 본회에서 조용철 상임부회장이, 몽골에서는 척트바타르 몽골외교부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국가 간의 합동훈련 추진, 국가대표 교류 등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1월 29일 오후 3시 30분, 강동KDW웨딩홀에서 개최됐다.

19명의 대의원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이사 사임, 각종 규정 개정,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019년도 사업 및 회계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사항으로는 정관개정 심의의 건, 2019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이 있었다.

심의 결과 정관 개정 심의의 건과 2019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2020년도 제1, 2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20년도 제1, 2차 정기승단심사가 2월 27일과 5월 28일에 실시됐다. 금년도 승단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회 모두 서면결의로 진행되었으며 1차에서 3,878명이, 2차에서 2,046명이 합격하였다.

승단인원-1차

| | | | | | |
|----|-----|------|------|------|------|
| 7단 | 2명 | 3단 | 37명 | 소년2단 | 119명 |
| 5단 | 8명 | 소년3단 | 4명 | 초단-2 | 180명 |
| 4단 | 10명 | 2단 | 862명 | 소년초단 | 656명 |

승단인원-2차

| | | | | | | | |
|----|----|------|-----|------|------|------|------|
| 7단 | 2명 | 4단 | 12명 | 2단 | 500명 | 소년초단 | 375명 |
| 6단 | 1명 | 3단 | 43명 | 소년2단 | 143명 | | |
| 5단 | 8명 | 소년3단 | 9명 | 초단 | 953명 | | |

국제유도연맹 심판 및 지도자 세미나 파견

2020 국제유도연맹 심판 및 지도자 세미나가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됐다. 본회는 이번 세미나에 윤현 심판위원장과 정준호 경기위원장장을 파견했다.

조구함, 코카콜라체육대상 우수상



남자 100kg이하급 조구함이 제25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조구함은 2019 후허하오터 그랑프리와 2019 국제유도연맹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의 성적을 이뤄냈다.

코카콜라 체육대상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1995년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위해 제정한 아마추어 스포츠 시상식이다. 조구함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기쁘고 영광이다. 코카콜라체육대상은, 어릴 때부터 훌륭한 선배님들이 수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언젠가 받을 수 있기를 꿈꿔온 상이다. 그런 시상식에서 우수선수상을 받게 되니 내게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고, 운동을 하는데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유도선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쉽게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향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정진할 수 있을 것 같다.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항상 열심히 지도해주시는 감독님과 코치님들, 그리고 함께 피와 땀을 흘려가며 훈련하는 동료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37대 집행부 제11차 이사회 개최

제37대 집행부 제11차 이사회가 1월 18일 오전 11시, 강원도 동해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2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진행된 주요 국내대회 개최 사업, 국제대회 파견 사업, 기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사항으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심판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2019년도 표창대상자 선정 승인의 건, 여자국가대표팀 지도자 추가 채용의 건, 전국대회 참석 고단자 여비 지급의 건, 2019년도 사업 및 결산(안) 심의의 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과실금 사용 승인의 건이 있었다. 심의 결과 모든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정관 개정안과 2019년도 사업 및 결산 상정안은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또한 고단자에 대한 여비는 지급키로 했으나, 자세한 지급방법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2019년도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실시

2019년도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이 1월 5일부터 17일까지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지도자 7명, 선수 3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명단

| 지도자(7명) | 임희대(전남지도자), 청라중 감독), 홍다미(동남초 코치), 양원준(의산초 코치), 이효열(홍덕초 코치), 최수진(철원초 코치), 권성훈(순천신흥초 코치), 박민영(송중초 코치) | | | | | | | | | | | | | | | | |
|--|---|----------|----------|---------------------------------------|--------------------------------------|---|-----------------------------|--------------------------------------|---------------------------------------|---|-------------------------|--|------------------------------|--------------------------------------|--------------------------|--------------------------------------|--|
| 선수 (38명) | <table border="1"> <thead> <tr> <th>[남자 21명]</th> <th>[여자 17명]</th> </tr> </thead> <tbody> <tr> <td>-36kg 안장혁(서울송중초), 이창학(신월원초), 김민식(철원초)</td> <td>-36kg 강여원(동남초), 주수림(청계초), 박예지(순천신흥초)</td> </tr> <tr> <td>-42kg 김상규(대구남산초), 백승재(서울송중초), 전민성(신월원초)</td> <td>-40kg 홍규리(제주종양초), 이시진(신월원초)</td> </tr> <tr> <td>-48kg 우영수(신금초), 오서진(대구산격초), 이승현(동남초)</td> <td>-44kg 신유미(제주보목초), 백지호(서천초), 한율겸(신월원초)</td> </tr> <tr> <td>-54kg 최우빈(제주남읍초), 김태엽(인천가좌초), 김종윤(신월원초)</td> <td>최재희(광양마동초), 배슬비(남양주금곡초)</td> </tr> <tr> <td>-60kg 나석원(인천서흥초), 윤지훈(인천삼산초), 김경민(인천서흥초)</td> <td>-48kg 이나경(울산남산초), 이수연(인천서흥초)</td> </tr> <tr> <td>-66kg 박승민(용암초), 김진환(인천남촌초), 이대원(삼산초)</td> <td>-52kg 송가인(신금초), 박지혜(철원초)</td> </tr> <tr> <td>+66kg 최성원(대구성동초), 김성훈(태현초), 방병규(용화초)</td> <td>+52kg 이현지(신제주초), 김지현(안산광덕초), 한예주(신월원초)</td> </tr> </tbody> </table> | [남자 21명] | [여자 17명] | -36kg 안장혁(서울송중초), 이창학(신월원초), 김민식(철원초) | -36kg 강여원(동남초), 주수림(청계초), 박예지(순천신흥초) | -42kg 김상규(대구남산초), 백승재(서울송중초), 전민성(신월원초) | -40kg 홍규리(제주종양초), 이시진(신월원초) | -48kg 우영수(신금초), 오서진(대구산격초), 이승현(동남초) | -44kg 신유미(제주보목초), 백지호(서천초), 한율겸(신월원초) | -54kg 최우빈(제주남읍초), 김태엽(인천가좌초), 김종윤(신월원초) | 최재희(광양마동초), 배슬비(남양주금곡초) | -60kg 나석원(인천서흥초), 윤지훈(인천삼산초), 김경민(인천서흥초) | -48kg 이나경(울산남산초), 이수연(인천서흥초) | -66kg 박승민(용암초), 김진환(인천남촌초), 이대원(삼산초) | -52kg 송가인(신금초), 박지혜(철원초) | +66kg 최성원(대구성동초), 김성훈(태현초), 방병규(용화초) | +52kg 이현지(신제주초), 김지현(안산광덕초), 한예주(신월원초) |
| [남자 21명] | [여자 17명] | | | | | | | | | | | | | | | | |
| -36kg 안장혁(서울송중초), 이창학(신월원초), 김민식(철원초) | -36kg 강여원(동남초), 주수림(청계초), 박예지(순천신흥초) | | | | | | | | | | | | | | | | |
| -42kg 김상규(대구남산초), 백승재(서울송중초), 전민성(신월원초) | -40kg 홍규리(제주종양초), 이시진(신월원초) | | | | | | | | | | | | | | | | |
| -48kg 우영수(신금초), 오서진(대구산격초), 이승현(동남초) | -44kg 신유미(제주보목초), 백지호(서천초), 한율겸(신월원초) | | | | | | | | | | | | | | | | |
| -54kg 최우빈(제주남읍초), 김태엽(인천가좌초), 김종윤(신월원초) | 최재희(광양마동초), 배슬비(남양주금곡초) | | | | | | | | | | | | | | | | |
| -60kg 나석원(인천서흥초), 윤지훈(인천삼산초), 김경민(인천서흥초) | -48kg 이나경(울산남산초), 이수연(인천서흥초) | | | | | | | | | | | | | | | | |
| -66kg 박승민(용암초), 김진환(인천남촌초), 이대원(삼산초) | -52kg 송가인(신금초), 박지혜(철원초) | | | | | | | | | | | | | | | | |
| +66kg 최성원(대구성동초), 김성훈(태현초), 방병규(용화초) | +52kg 이현지(신제주초), 김지현(안산광덕초), 한예주(신월원초) | | | | | | | | | | | | | | | | |



2020년도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실시

2020년도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이 1, 2차에 걸쳐 실시됐다. 1차 훈련은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 동안 진천선수촌에서 실시됐고, 2차 훈련은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9박 10일 동안 전남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지도자 5명, 선수 49명(중간교체 포함)이 참가했다. 한편, 당초 3회에 걸쳐 실시 예정이었던 2020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3차 훈련이 연기됐다.

참가자 명단

| 지도자 (5명) | 김현태(전임지도자), 임광영(송도고 감독), 김재훈(경기대 감독), 홍승한(한국체대 코치), 김주연(선문대 감독) | | | | | | | | | | | | | | | | | | |
|--|--|----------|----------|-------------------------------------|--|-------------------------------------|--------------------------------------|------------------------------------|---------------------------------------|------------------------------------|--------------------------------------|-------------------------------------|-------------------------------------|---------------------------------------|--|--|--|--------------------------------------|--------------------------------------|
| 선수 (49명) | <table border="1"> <thead> <tr> <th>[남자 24명]</th> <th>[여자 25명]</th> </tr> </thead> <tbody> <tr> <td>-55kg 김승현(보성고), 김용신(주문진고), 두민재(보성고)</td> <td>-48kg 허승민(서울체고), 김지연(충북체고), 한수연(울산생과고)</td> </tr> <tr> <td>-60kg 하정우(경민고), 김태윤(보성고), 이성민(한국체대)</td> <td>-52kg 장세운(서울체고), 정나리(삼정고), 안채연(충남체고)</td> </tr> <tr> <td>-66kg 안재홍(경민고), 최낙일(우석고), 배동현(경신고)</td> <td>-57kg 허슬미(경민T고), 박예은(설원여고), 박나연(경남체고)</td> </tr> <tr> <td>-73kg 이은결(보성고), 김태도(경민고), 배성민(원광고)</td> <td>-63kg 제지우(망령여고), 김예지(도개고), 정승아(경기체고)</td> </tr> <tr> <td>-81kg 이준환(경민고), 이재록(보성고), 전홍민(서울체고)</td> <td>-69kg 신채원(대구체고), 김예림(도개고), 자연주(영서고)</td> </tr> <tr> <td>-90kg 이남훈(주산고), 여예준(금호공고), 김재민(울산스파고)</td> <td>-70kg 박세은(경기체고), 김민주(경민T고), 최엄지(주문진고), 안주연(광영여고)</td> </tr> <tr> <td>-100kg 박동욱(삼천포중장고), 김세현(남녕고), 권오찬(김천중장고)</td> <td>-78kg 김민주(광주체고), 이윤선(경기체고), 정유라(울산스파고)</td> </tr> <tr> <td>+10kg 송우혁(우석고), 박건우(서울체고), 김주영(인천체고)</td> <td>+78kg 박샛별(대구체고), 간다향(광영여고), 허미미(재일교)</td> </tr> </tbody> </table> | [남자 24명] | [여자 25명] | -55kg 김승현(보성고), 김용신(주문진고), 두민재(보성고) | -48kg 허승민(서울체고), 김지연(충북체고), 한수연(울산생과고) | -60kg 하정우(경민고), 김태윤(보성고), 이성민(한국체대) | -52kg 장세운(서울체고), 정나리(삼정고), 안채연(충남체고) | -66kg 안재홍(경민고), 최낙일(우석고), 배동현(경신고) | -57kg 허슬미(경민T고), 박예은(설원여고), 박나연(경남체고) | -73kg 이은결(보성고), 김태도(경민고), 배성민(원광고) | -63kg 제지우(망령여고), 김예지(도개고), 정승아(경기체고) | -81kg 이준환(경민고), 이재록(보성고), 전홍민(서울체고) | -69kg 신채원(대구체고), 김예림(도개고), 자연주(영서고) | -90kg 이남훈(주산고), 여예준(금호공고), 김재민(울산스파고) | -70kg 박세은(경기체고), 김민주(경민T고), 최엄지(주문진고), 안주연(광영여고) | -100kg 박동욱(삼천포중장고), 김세현(남녕고), 권오찬(김천중장고) | -78kg 김민주(광주체고), 이윤선(경기체고), 정유라(울산스파고) | +10kg 송우혁(우석고), 박건우(서울체고), 김주영(인천체고) | +78kg 박샛별(대구체고), 간다향(광영여고), 허미미(재일교) |
| [남자 24명] | [여자 25명] | | | | | | | | | | | | | | | | | | |
| -55kg 김승현(보성고), 김용신(주문진고), 두민재(보성고) | -48kg 허승민(서울체고), 김지연(충북체고), 한수연(울산생과고) | | | | | | | | | | | | | | | | | | |
| -60kg 하정우(경민고), 김태윤(보성고), 이성민(한국체대) | -52kg 장세운(서울체고), 정나리(삼정고), 안채연(충남체고) | | | | | | | | | | | | | | | | | | |
| -66kg 안재홍(경민고), 최낙일(우석고), 배동현(경신고) | -57kg 허슬미(경민T고), 박예은(설원여고), 박나연(경남체고) | | | | | | | | | | | | | | | | | | |
| -73kg 이은결(보성고), 김태도(경민고), 배성민(원광고) | -63kg 제지우(망령여고), 김예지(도개고), 정승아(경기체고) | | | | | | | | | | | | | | | | | | |
| -81kg 이준환(경민고), 이재록(보성고), 전홍민(서울체고) | -69kg 신채원(대구체고), 김예림(도개고), 자연주(영서고) | | | | | | | | | | | | | | | | | | |
| -90kg 이남훈(주산고), 여예준(금호공고), 김재민(울산스파고) | -70kg 박세은(경기체고), 김민주(경민T고), 최엄지(주문진고), 안주연(광영여고) | | | | | | | | | | | | | | | | | | |
| -100kg 박동욱(삼천포중장고), 김세현(남녕고), 권오찬(김천중장고) | -78kg 김민주(광주체고), 이윤선(경기체고), 정유라(울산스파고) | | | | | | | | | | | | | | | | | | |
| +10kg 송우혁(우석고), 박건우(서울체고), 김주영(인천체고) | +78kg 박샛별(대구체고), 간다향(광영여고), 허미미(재일교) | | | | | | | | | | | | | | | | | | |



조용철 상임부회장, 몽골 칭기즈칸 최고훈장 수훈

본회 조용철 상임부회장(용인대 교수)이 2월 3일, 몽골정부에서 수여하는 칭기즈 칸 최고훈장을 수훈했다.

조용철 상임부회장은 그동안 한-몽골간 유도교류 및 발전에 대한 공헌을 한 업적을 인정받아 몽골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됐다.

조수희 코치, 여자대표팀 코치로 선임



조수희 코치가 1월 27일부로 여자대표팀 코치로 선임됐다.

조수희는 용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인도네시아대표팀 코치, 영해초 코치, 대한장애인협회 코치를 역임했다.

정현국 감독, 상임심판으로 선임



정현국 소양고 감독이 새로운 상임심판으로 선임돼 6월 1일부터 상임심판으로 활동하게 됐다.

정현국 신임 상임심판은 부안초, 우석여중, 강원체고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왔으며, 모범심판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에서 심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승엽 감독, 청소년대표팀 전담지도자로 선임



최승엽 경남도청 감독이 청소년대표팀 전담지도자로 선임됐다.

최승엽 감독은 용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선정고등학교, 마산대학교 감독을 역임했으며 국제유도연맹 심판 및 국내 1급 심판으로 활동 중이다.

유도인 경조사 (2020년 1월 ~ 6월)

| | |
|--------|---------------------|
| 1월 3일 | 강만순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장 모친상 |
| 2월 22일 | 이천우 서울특별시유도회장 자녀 결혼 |
| 3월 4일 | 배상일 여자국가대표팀 감독 부친상 |
| 3월 20일 | 장광웅 본회 자문위원 부인상 |
| 3월 27일 | 금호연 남자국가대표팀 감독 빙부상 |
| 5월 2일 | 이희철 전 영선고 교장 자녀 결혼 |
| 5월 23일 | 박승용 강원도유도회장 자녀 결혼 |

동트는 동해 2020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및 2020 초등학교 전국유도대회

기간 2020년 1월 18일 ~ 20일(3일간) / 장소 강원, 동해실내체육관

RECORD

초등학교 전국유도대회

| 종별 | 체급 | 3위 | | |
|-----|-------|------------------|---------------|------------------|
| | | 1위 | 2위 | - |
| 남초부 | -36kg | 장서윤(북삼초등학교) | 김도연(기린초등학교) | 최우진(대전천동초등학교) |
| | -42kg | 이담(대전천동초등학교) | - | - |
| | -48kg | 전민규(용인대백호유도체육관) | 김태연(기린초등학교) | - |
| | -54kg | 김준혁(민안마이노일티집유도관) | 김건(사북초등학교) | 고태성(파이널유도멀티집·안양) |
| | -60kg | 김경민(삼척유도관) | - | - |
| | +66kg | 이홍순(대전한성유도관) | 임엘리아(복삼초등학교) | 방시후(사북초등학교) |
| 여초부 | -36kg | 정지혜(와의유도클럽) | 공다인(대전천동초등학교) | - |
| | -44kg | 이재인(기린초등학교) | 김제경(기린초등학교) | 유지연(복삼초등학교) |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 종별 | 체급 | 3위 | | |
|------------|-------|--------------------|--------------------|--------------------|
| | | 1위 | 2위 | - |
| 유치부 | -20kg | 이담우(김재범유도관) | 원민준(우식유도체육관) | - |
| | -30kg | 임승규(한성유도관) | 이승민(김재범유도관) | 김지효(삼척유도관) |
| | +30kg | 권현준(용인대 도담유도체육관) | 김성준(우식유도체육관) | - |
| | -36kg | 김나윤(상무유도관) | 박가은(김해유도관) | 박지안(상무유도관) |
| | -42kg | 김정민(복삼초등학교) | 양서영(김재범유도관) | - |
| | -48kg | 육하영(단동초등학교) | 김아림(용인대 도담유도체육관) | - |
| 여초부(1~3학년) | -48kg | 하우정(김해유도관) | 김세은(태백유도관) | 박신영(상무유도관) |
| | -57kg | 최현희(파이널유도멀티집·영종) | 박채린(&J유도아카데미) | - |
| | +57kg | 이승진(용인대투혼유도클립) | 김나연(부천용인대유도체육관) | 최혜정(용인대투혼유도클립) |
| | -36kg | 사공도윤(안병근을림픽기념유도관) | 이규연(당진하나루유도관) | 이준(사북초등학교) |
| | -42kg | 고경서(복삼초등학교) | 장영웅(당진하나루유도관) | 정의승(사북초등학교) |
| | -48kg | 여지후(영월 내성초등학교) | 윤자혁(복삼초등학교) | 노건재(당진하나루유도관) |
| 여초부(4~6학년) | -54kg | 이지운(양기춘간자유도관) | 안강혁(파이널유도멀티·수원) | 문원택(양주고유도체육관) |
| | -60kg | 손도현(당진하나루유도관) | 지승준(바른자세권성세유도관·강동) | - |
| | -36kg | 윤태양(파이널유도멀티집·수원) | 김재원(안동유도관) | 안도현(우석유도체육관) |
| | -42kg | 유재준(김재범유도관) | 이주현(부천용인대유도체육관) | 김도윤(승단유도관) |
| | -48kg | 김주혁(김재범유도관) | 김범수(부천용인대유도체육관) | 오태산(ACE유도스쿨) |
| | -54kg | 박준영(양산용인대유도관) | 이정구(양산용인대유도관) | 전정우(파이널유도멀티집·유소년관) |
| 남초부(1~3학년) | -60kg | 백준호(JnS JYM) | 이주혁(용인대불당유도관) | 이법웅(양산용인대유도관) |
| | -66kg | 이은성(JnS JYM) | 김명진(산본유도관) | 남상우(용인대불당유도관) |
| | +66kg | 김동해(대한유도체육관) | 최명근(영통유도체육관) | 정윤상(세종충무유도관) |
| | -44kg | 김수연(지명유도관) | - | - |
| | -48kg | 박하은(바른자세권성세유도관·강동) | 이채희(송탄유도관) | 문혜원(김재범유도관) |
| | -52kg | 허하운(춘천유도스쿨) | 임예진(유사사 유도관·수원) | 조문혜(JnS JYM) |
| 여중부 | -57kg | 이현민(용인대김파미승유도밀티집) | 임예린(민안마이노) | 김경연(의정부시유도회관) |
| | -63kg | 정예답(해운대유심유도관) | 양다현(거제유도관) | 박민주(파이널유도멀티집·안양) |
| | -70kg | 김민지(삼척유도관) | 임정은(한성유도관) | 원희영(의정부시유도회관) |
| | +70kg | 김민영(군자한양유도관) | 이채영(의정부시유도회관) | 조우주(양구유도관) |
| | -45kg | 허정호(당진하나루유도관) | 김종선(지명유도관) | 김종원(당진하나루유도관) |
| | -50kg | 김린(공정유도관) | 허정원(M2M 스포츠아카데미) | 국윤수(공정유도관) |
| 남중부 | -55kg | 김호윤(춘천유도스쿨) | 정승윤(의정부시유도회관) | 유예훈(승탄유도관) |
| | -60kg | 차정우(춘천유도스쿨) | 최정재(대한유도관) | 신민우(파이널유도밀티집) |
| | -66kg | 최원혁(마산무덕관) | 임선옥(시흥유도관) | 김명은(천안유도관) |
| | -73kg | 권용일(대전한성유도관) | 이건희(파이널유도밀티집·본점) | 이도리(대한유도관) |
| | -81kg | 김환(파이널유도밀티집·본점) | 김도형(양산용인대유도관) | 조현호(왕기춘간자유도관) |
| | -90kg | 심준범(산본유도관) | 김무진(아시아스포츠) | 강현철(대한한성유도관) |
| 여고부 | +90kg | 이태선(용인대불당유도관) | 신성령(용인대불당유도관) | 황수현(M2M 스포츠아카데미) |
| | -48kg | 김예원(선인유도관) | 김승혜(거제유도관) | 임재원(김포한강체육관) |
| | -52kg | 정승미(영통유도체육관) | 이예원(탑유도관) | 최민서(와의유도클립) |
| | -57kg | 황채린(분당유도관) | 김송이(유사사 유도관·수원) | 이아연(춘천유도스쿨) |
| | -63kg | 오은정(와의유도클립) | 명지수(양산용인대유도체육관) | 배윤지(부천용인대유도체육관) |
| | -70kg | 김다빈(JnS JYM) | 김가은(유사사 유도관·수원) | 정이름(용인대중앙유도체육관) |
| 여고부 | -78kg | 장민형(서울마이티체육관) | 이혜민(임장사유도체육관) | 김수연(대한유도관) |
| | +78kg | 이현정(용인대투혼유도클립) | 이수현(용인대투혼유도클립) | 이경제(대한유도관) |

| 종별 | 체급 | 3위 | | |
|-------------|---------|-----------------|------------------|------------------|
| | | 1위 | 2위 | 3위 |
| 남고부 | -55kg | 정찬영(지명유도관) | 이강철(아시아스포츠) | 오지안(파이널유도밀티집·수원) |
| | -60kg | 김민기(마산무덕관) | 송진우(인대호계유도관) | 이구원(춘천유도스쿨) |
| | -66kg | 이동호(승단유도관) | 허천우(춘천유도스쿨) | 서재선(대전올림픽유도관) |
| | -73kg | 김남훈(유사사 유도관·수원) | 김시현(민안마이노) | 이세현(분당유도관) |
| | -81kg | 이우신(ACE유도스쿨) | 김홍선(유사사 유도관·수원) | 김신행(영동유도체육관) |
| | -90kg | 이현성(인천유도관) | 조용민(영동유도체육관) | 정병연(승단유도관) |
| 여대부 및 여일반부 | -100kg | 김우석(태평유도관) | 황민석(유사사 유도관·수원) | 김용환(백금유도클립) |
| | +100kg | 이관용(양산용인대유도관) | 최지호(백금유도클립) | 서태웅(유도용합발달센터) |
| | -48kg | 전지연(대한유도관) | 김소진(안산최강고진유도체육관) | 이의나(목포해양대학교) |
| | -52kg | 곽인조(영동유도체육관) | 권효정(한반유도관) | 김정원(목포해양대학교) |
| | -57kg | 임보미(민안마이노) | 강수인(한국체육대학교) | 조미주(춘천유도스쿨) |
| | -63kg | 김남희(오산시유도회관) | 서가연(국제유도관·광주) | 조정수(목포해양대학교) |
| 청년부 | -70kg | 성주미(ACE유도스쿨) | 전수진(의정부시유도회관) | 곽승연(춘천유도스쿨) |
| | +78kg | 김가희(진선미유도관) | 채재민우(오륜유도관) | 최은영(안산최강고진유도체육관) |
| | -60kg | 박준혁(임장사유도체육관) | 이창건(한국체육대학교) | 김원경(한체대수신유도체육관) |
| | -66kg | 이재혁(와의유도클립) | 최유빈(공명유도관) | 정세준(파이널유도밀티집·안양) |
| | -73kg | 최승환(부자유도관) | 김도혁(영동군유도회) | 이인석(시흥유도관) |
| | -81kg | 황미록(유사사 유도관·수원) | 변정우(시흥유도관) | 박화원(삼척유도관) |
| 중년부 | -90kg | 진성길(경찰청) | 윤대영(유사사 유도관·수원) | 김경수(서울Y유도체육관) |
| | -100kg | 황성철(부천용인대유도체육관) | 임기준(양산용인대유도관) | 연제혁(의정부시유도회관) |
| | +100kg | 추민수(김포한강체육관) | 김선범(대전올림픽유도관) | 이민수(거승유도관) |
| | -66kg | 이경준(안양교도소유도교실) | 이상섭(세종충무유도관) | 김석중(의정부시유도회관) |
| | -73kg | 김정수(세종충무유도관) | - | - |
| | -81kg | 김정현(오륜유도관) | 곽상우(용인대호계유도관) | - |
| 장년부 | -90kg | 이원준(임장사유도체육관) | 변진섭(용인대호계유도관) | 김민철(안양교도소유도교실) |
| | -100kg | 박목원(오륜유도관) | 박정인(안산최강고진유도체육관) | 이현일(안양유도관) |
| | +100kg | 이세형(태백유도관) | 최승용(삼척유도관) | - |
| | -66kg | 태장열(대전올림픽유도관) | - | - |
| | -73kg | 정일연(세종충무유도관) | 양정준(국사관유도장) | - |
| | -81kg | 김성근(의정부시유도회관) | 박병규(안양교도소유도교실) | 이종진(대한경의유도관) |
| 단체전 | -90kg | 한상학(한국체대 태전유도관) | 정봉진(세종충무유도관) | 김호(공주유도관) |
| 종별(생활체육) | 우승 | 준우승 | 3위 | |
| 남초부 (4~6학년) | JnS JYM | 양산용인대 유도관 | 부천용인대 유도체육관 | JnS JYM |
| 남중부 | 대전한성유도관 | JnS JYM | 선인유도관 | 춘천유도스쿨 |
| 여중부 | 안산유도체육관 | 의정부시 유도회관 | 거승유도관 | 천명유도관 |
| 남고부 | 선인유도관 | 영동유도체육관 | 유사사 유도관 (수원) | 오산시유도회관 |
| 여고부 | 안산유도체육관 | 유사사 유도관 (수원) | 춘천유도스쿨 | 영동유도체육관 |
| 남일반부 | 안신유도체육관 | 유사사 유도관 (수원) | 안산유도체육관 | 의정부시 유도회관 |
| 여일반부 | 안산유도체육관 | - | - | - |
| 체육관 | 안산유도체육관 | 양산용인대 유도관 | 영동유도체육관 | 의정부시 유도회관 |
| 구분 | 종별 | 본 | 순위 | 소속 |
| 고등부 | 메치기 본 | 1위 | 송탄유도관 | 홍석주 이동호 |
| | 2위 | 독산유도관 | 이태근 민경운 | |
| 생활체육부 | 굳히기 본 | 1위 | 승동유도관 | 이병주 김병진 |
| | 2위 | 독산유도관 | 박성준 장재우 | |
| 일반부 | 굳히기 본 | 1위 | 내체력유도관 | 강재희 최 |

2020년 제1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0년 2월 28일)

| 7단 | | 42377 | 김 초 희 | 138323 | 윤 형 준 | 138382 | 정 예 준 | 138441 | 백 규 원 | 138500 | 윤 정 배 | 138559 | 박 규 민 | 138618 | 김 주 희 | 138677 | 남 수 찬 | 138736 | 정 태 민 | 138795 | 정 소 은 | 138854 | 이 재 덕 |
|-------|-------|--------|-------|--------|-------|--------|-------|--------|-------|--------|-------|--------|-------|--------|--------|--------|-------|--------|-------|--------|-------|--------|-------|
| 11958 | 김 두 목 | 42378 | 김 준 희 | 138324 | 이 민 우 | 138383 | 이 찬 민 | 138442 | 윤 하 늘 | 138501 | 조 준 하 | 138560 | 박 미 진 | 138619 | 김 성 주 | 138678 | 박 재 용 | 138737 | 정 현 민 | 138796 | 박 경 훈 | 138855 | 장 진 혁 |
| 11959 | 김 대 현 | 42379 | 이 재 영 | 138325 | 권 진 우 | 138384 | 김 우 석 | 138443 | 조 세 진 | 138502 | 장 민 석 | 138561 | 박 보 경 | 138620 | 권 영 조 | 138679 | 강 경 희 | 138738 | 김 덕 희 | 138797 | 정 지 도 | 138856 | 김 수 희 |
| 5단 | | 42380 | 최 유 라 | 138326 | 정 혜 찬 | 138385 | 김 민 성 | 138444 | 김 순 용 | 138503 | 심 현 우 | 138562 | 박 상 환 | 138621 | 허 민 주 | 138680 | 강 정 호 | 138739 | 이 정 민 | 138798 | 김 도 연 | 138857 | 김 세 인 |
| 2단 | | 42381 | 류 용 주 | 138327 | 박 준 기 | 138386 | 순 희 원 | 138445 | 서 채 현 | 138504 | 김 윤 아 | 138563 | 박 수 민 | 138622 | 이 유 영 | 138681 | 오 규 태 | 138740 | 공 영 원 | 138799 | 주 태 창 | 138858 | 이 제 영 |
| 15127 | | 138271 | 윤 시 원 | 138328 | 정 윤 석 | 138387 | 강 상 훈 | 138446 | 하 경 원 | 138505 | 오 지 원 | 138564 | 박 정 하 | 138623 | 조 선 형 | 138682 | 박 상 권 | 138741 | 채 정 석 | 138800 | 오 정 | 138859 | 이 상 열 |
| 15128 | | 138272 | 심 범 종 | 138329 | 이 유 찬 | 138388 | 김 명 면 | 138447 | 김 효 림 | 138506 | 최 순 후 | 138565 | 배 윤 아 | 138624 | 허 민 지 | 138683 | 김 혜 진 | 138742 | 윤 수 진 | 138801 | 이 윤 상 | 138860 | 박 형 진 |
| 15129 | | 138273 | 조 현 철 | 138330 | 이 재 일 | 138389 | 원 강 호 | 138448 | 김 도 윤 | 138507 | 김 인 애 | 138566 | 서 석 빙 | 138625 | 진 정 아 | 138684 | 서 예 진 | 138743 | 현 승 배 | 138802 | 유 찬 서 | 138861 | 신 현 석 |
| 15130 | | 138274 | 강 영 길 | 138331 | 전 현 우 | 138390 | 이 창 의 | 138449 | 박 지 환 | 138508 | 신 재 응 | 138567 | 손 제 명 | 138626 | 고 민 지 | 138685 | 심 유 나 | 138744 | 윤 가 경 | 138803 | 박 치 효 | 138862 | 박 성 현 |
| 15131 | | 138275 | 고 준 호 | 138332 | 김 재 윤 | 138391 | 박 진 혁 | 138450 | 김 태 환 | 138509 | 양 형 민 | 138568 | 신 동 규 | 138627 | 이 상 응 | 138686 | 이 민 희 | 138745 | 이 대 길 | 138804 | 서 효 승 | 138863 | 김 광 모 |
| 15132 | | 138276 | 김 영 석 | 138333 | 신 재 우 | 138392 | 유 진 현 | 138451 | 최 희 나 | 138510 | 장 세 현 | 138569 | 염 원 희 | 138628 | 최 우 혁 | 138687 | 김 경 진 | 138746 | 송 수 영 | 138805 | 송 하 람 | 138864 | 김 동 육 |
| 15133 | | 138277 | 장 은 속 | 138334 | 주 세 준 | 138393 | 송 현 | 138452 | 유 창 륙 | 138511 | 김 동 우 | 138570 | 이 복 안 | 138629 | 이 민 지 | 138688 | 신 상 윤 | 138747 | 전 혜 리 | 138806 | 조 한 서 | 138865 | 장 윤 성 |
| 15134 | | 138278 | 고 자 랍 | 138335 | 박 현 준 | 138394 | 남 수 관 | 138453 | 박 준 형 | 138512 | 유 정 훈 | 138571 | 이 승 희 | 138630 | 김 민 준 | 138689 | 이 서 현 | 138748 | 이 태 영 | 138807 | 장 병 수 | 138866 | 이 수 진 |
| 4단 | | 138279 | 최 종 인 | 138336 | 강 우 혁 | 138395 | 김 재 현 | 138454 | 조 영 현 | 138514 | 정 지 혜 | 138573 | 이 현 송 | 138632 | 송 우 석 | 138691 | 박 준 영 | 138750 | 황 훈 태 | 138809 | 장 진 영 | 138866 | 김 무 진 |
| 25913 | | 138280 | 최 민 협 | 138337 | 이 재 진 | 138397 | 고 병 훈 | 138456 | 송 운 섭 | 138515 | 이 동 수 | 138633 | 문 민 석 | 138692 | 김 미 류 | 138810 | 김 관 호 | 138869 | 나 승 군 | 138866 | 나 승 군 | 138869 | 나 승 군 |
| 25914 | | 138281 | 박 영 규 | 138338 | 정 원 재 | 138398 | 김 성 연 | 138457 | 박 선 우 | 138516 | 박 인 원 | 138634 | 전 권 우 | 138693 | 박 정 학 | 138752 | 김 남 학 | 138811 | 추 연 선 | 138870 | 오 민 아 | 138871 | 김 다 은 |
| 25915 | | 138282 | 최 한 나 | 138339 | 홍 석 준 | 138399 | 이 인 용 | 138458 | 이 도 형 | 138517 | 박 준 식 | 138635 | 윤 영 응 | 138694 | 차 창 준 | 138753 | 송 용 호 | 138812 | 손 수 민 | 138871 | 김 다 은 | 138872 | 김 하 연 |
| 25916 | | 138283 | 성 주 미 | 138340 | 김 신 | 138400 | 김 건 남 | 138459 | 최 준 영 | 138518 | 김 병 수 | 138636 | 김 택 관 | 138695 | 박 준 서 | 138754 | 홍 성 빙 | 138813 | 유 성 준 | 138876 | 김 민 정 | 138877 | 최 재 훈 |
| 25917 | | 138284 | 주 원 택 | 138341 | 김은 성 | 138401 | 이 재 윤 | 138460 | 김 주 종 | 138519 | 정 재 영 | 138637 | 이 탄 하 | 138696 | 김 민 성 | 138755 | 최 봉 호 | 138814 | 차 정 우 | 138873 | 박 한 율 | 138874 | 최 재 훈 |
| 25918 | | 138285 | 김 적 | 138342 | 정 민 창 | 138402 | 류 친 규 | 138461 | 최 희 원 | 138520 | 전 성 건 | 138638 | 박 소 연 | 138697 | 정 지 희 | 138756 | 임 수 빙 | 138815 | 장 현 정 | 138875 | 조 예 림 | 138876 | 김 민 정 |
| 25919 | | 138286 | 박 준 원 | 138343 | 채 윤 병 | 138403 | 최 친 태 | 138462 | 허 정 우 | 138521 | 진 수 빙 | 138639 | 김 민 수 | 138698 | 서 주 원 | 138757 | 최 현 정 | 138816 | 김 흥 수 | 138875 | 조 예 림 | 138876 | 김 민 정 |
| 25920 | | 138287 | 최 우 재 | 138344 | 장 도 군 | 138404 | 박 주 영 | 138463 | 최 요 환 | 138522 | 정 예 린 | 138640 | 지 운 석 | 138699 | 김 찬 형인 | 138758 | 전 지 혜 | 138817 | 최 재 혔 | 138877 | 최 진 현 | 138878 | 최 진 현 |
| 25921 | | 138288 | 심 우 진 | 138345 | 박 종 환 | 138405 | 신 지 환 | 138464 | 최 성 환 | 138523 | 문 보 성 | 138641 | 정 희 찬 | 138700 | 원 종 훈 | 138759 | 이 수 연 | 138818 | 이 태 균 | 138873 | 박 한 율 | 138874 | 최 재 훈 |
| 25922 | | 138289 | 박 흥 주 | 138346 | 백 송 찬 | 138406 | 황 예 준 | 138465 | 이 해 진 | 138524 | 강 동 진 | 138642 | 최 병 조 | 138701 | 권 태 혁 | 138760 | 강 지 수 | 138819 | 이 승 구 | 138878 | 하 지 은 | 138879 | 이 예 진 |
| 3단 | | 138290 | 김 동 은 | 138347 | 김 등 은 | 138407 | 박 채 원 | 138466 | 김 도 연 | 138525 | 서 현 수 | 138643 | 박 민 수 | 138702 | 김 지 훈 | 138761 | 고 은 서 | 138820 | 이 동 진 | 138878 | 이 예 진 | 138879 | 이 예 진 |
| 42345 | | 138291 | 김 민 주 | 138348 | 김 준 형 | 138408 | 강 민 정 | 138467 | 홍 아 령 | 138526 | 이 태 호 | 138644 | 안 세 훈 | 138703 | 김 다 영 | 138762 | 심 주 희 | 138821 | 이 가 영 | 138880 | 김 재 박 | 138881 | 정 하 니 |
| 42346 | | 138292 | 김 성 진 | 138349 | 박 성 혁 | 138409 | 나 민 창 | 138468 | 최 승 준 | 138527 | 서 지 영 | 138645 | 윤 기 현 | 138704 | 강 서 현 | 138763 | 이 준 용 | 138822 | 정 민 규 | 138882 | 정 나 온 | 138883 | 박 서 영 |
| 42347 | | 138293 | 이 종 두 | 138350 | 김 성 진 | 138410 | 김 준 희 | 138469 | 선 경 수 | 138528 | 이 서 진 | 138646 | 정 우 빙 | 138705 | 유 지 나 | 138764 | 황 지 원 | 138823 | 김 수 인 | 138882 | 정 나 온 | 138883 | 박 서 영 |
| 42348 | | 138294 | 우 정 훈 | 138351 | 김 용 구 | 138411 | 이 우 열 | 138470 | 김 수 정 | 138529 | 윤 지 민 | 138647 | 김 효 진 | 138706 | 박 정 문 | 138765 | 김 영 서 | 138824 | 박 예 진 | 138883 | 박 서 영 | 138884 | 박 지 원 |
| 42349 | | 13829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제1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0년 2월 28일)

| | | | | | | | | | | | |
|--------|-------|--------|-------|--------|-------|--------|-------|------|-------|------|-------|
| 138913 | 함 병 주 | 138972 | 김 형 주 | 139031 | 신 재 영 | 139090 | 최 태 준 | 6284 | 전 윤 재 | 6343 | 한 찬 희 |
| 138914 | 허 성 훈 | 138973 | 신 하 늘 | 139032 | 소 준 호 | 139091 | 이 상 빙 | 6285 | 이 승 규 | 6344 | 권 종 수 |
| 138915 | 윤 성 민 | 138974 | 박 세 연 | 139033 | 김 성 호 | 139092 | 김 형 주 | 6286 | 강 태 호 | 6345 | 강 재 혁 |
| 138916 | 김 지 우 | 138975 | 지 운 성 | 139034 | 김 현 수 | 139093 | 도 경 호 | 6287 | 조 정 익 | 6346 | 최 승 빙 |
| 138917 | 김 예 찬 | 138976 | 김 지 호 | 139035 | 유 승 선 | 139094 | 신 명 기 | 6288 | 성 현 동 | 6347 | 이 유 립 |
| 138918 | 이 재 원 | 138977 | 김 재 경 | 139036 | 김 동 현 | 139095 | 김 태 균 | 6289 | 전 재 경 | 6348 | 모 경 진 |
| 138919 | 정 진 기 | 138978 | 윤 화 평 | 139037 | 조 현 성 | 139096 | 이 재 환 | 6290 | 허 민 유 | 6349 | 김 시 울 |
| 138920 | 윤 성 진 | 138979 | 김 관 우 | 139038 | 이 태 용 | 139097 | 정 이 현 | 6291 | 손 휘 성 | 6350 | 이 인 규 |
| 138921 | 문 령 | 138980 | 김 세 은 | 139039 | 유 학 희 | 139098 | 오 준 석 | 6292 | 강 민 형 | 6351 | 이 창 민 |
| 138922 | 우 재 오 | 138981 | 이 진 육 | 139040 | 백 찬 우 | 139099 | 박 송 원 | 6293 | 조 현 대 | 6352 | 이 지 민 |
| 138923 | 임 재 연 | 138982 | 백 지 원 | 139041 | 강 지 민 | 139100 | 박 상 준 | 6294 | 하 지 후 | 6353 | 김 경 태 |
| 138924 | 박 세 영 | 138983 | 이 정 흠 | 139042 | 김 준 연 | 139101 | 강 도 경 | 6295 | 정 지 민 | 6354 | 한 승 민 |
| 138925 | 박 민 영 | 138984 | 이 상 준 | 139043 | 신 화 용 | 139102 | 신 승 민 | 6296 | 박 도 영 | 6355 | 여 송 연 |
| 138926 | 김 종 오 | 138985 | 김 남 억 | 139044 | 유 승 헌 | 139103 | 김 민 지 | 6297 | 이 인 설 | 6356 | 원 정 연 |
| 138927 | 양 희 윤 | 138986 | 정 성 호 | 139045 | 이 대 현 | 139104 | 최 성 온 | 6298 | 염 재 민 | 6357 | 임 주 한 |
| 138928 | 문 준 영 | 138987 | 김 동 현 | 139046 | 정 선 문 | 139105 | 손 효 지 | 6299 | 서 성 육 | 6358 | 최 무 진 |
| 138929 | 심 준 영 | 138988 | 문 성 현 | 139047 | 전 계 백 | 139106 | 홍 성 민 | 6300 | 윤 온 유 | 6359 | 박 윤 호 |
| 138930 | 홍 우 진 | 138989 | 박 윤 빈 | 139048 | 박 수 찬 | 139107 | 정 지 민 | 6301 | 최 우 빈 | 6360 | 임 도 경 |
| 138931 | 김 건 효 | 138990 | 배 건 희 | 139049 | 강 다 원 | 139108 | 배 동 아 | 6302 | 신 경 환 | 6361 | 박 기 육 |
| 138932 | 정 지 원 | 138991 | 최 윤 서 | 139050 | 공 예 린 | 139109 | 박 민 주 | 6303 | 윤 슬 우 | 6362 | 김 민 찬 |
| 138933 | 고 은 | 138992 | 권 민 선 | 139051 | 강 정 민 | 139110 | 김 주 현 | 6304 | 진 도 현 | 6363 | 정 우 경 |
| 138934 | 홍 유 진 | 138993 | 임 영 은 | 139052 | 함 철 진 | 139111 | 권 진 영 | 6305 | 손 석 빙 | 6364 | 김 시 우 |
| 138935 | 전 혜 연 | 138994 | 윤 혜 정 | 139053 | 조 준 근 | 139112 | 권 유 정 | 6306 | 유 형 진 | 6365 | 이 지 환 |
| 138936 | 진 화 정 | 138995 | 조 민 상 | 139054 | 구 민 섭 | 139113 | 이 동 현 | 6307 | 정 호 진 | 6366 | 서 은 규 |
| 138937 | 김 하 늘 | 138996 | 장 범 수 | 139055 | 김 지 원 | 139114 | 박 지 혜 | 6308 | 손 두 환 | 6367 | 최 윤 성 |
| 138938 | 장 은 영 | 138997 | 조 성 열 | 139056 | 원 호 경 | 139115 | 김 호 언 | 6309 | 조 성 환 | 6368 | 이 휘 |
| 138939 | 김 한 결 | 138998 | 김 태 육 | 139057 | 김 민 석 | 139116 | 김 현 정 | 6310 | 김 민 우 | 6369 | 송 소 민 |
| 138940 | 박 태 영 | 138999 | 김 민 수 | 139058 | 김 민 서 | 139117 | 오 진 희 | 6311 | 김 선 제 | 6370 | 최 윤 범 |
| 138941 | 장 현 성 | 139000 | 이 종 화 | 139059 | 이 자 현 | 139118 | 장 성 민 | 6312 | 김 강 인 | 6371 | 서 정 현 |
| 138942 | 원 형 진 | 139001 | 김 성 관 | 139060 | 양 나 경 | 139119 | 박 정 윤 | 6313 | 조 성 민 | 6372 | 박 의 현 |
| 138943 | 전 태 산 | 139002 | 김 찬 | 139061 | 김 세 린 | 139120 | 김 서 인 | 6314 | 김 현 중 | 6373 | 최 수 호 |
| 138944 | 강 은 유 | 139003 | 김 현 덕 | 139062 | 오 동 현 | 139121 | 이 재 근 | 6315 | 박 선 정 | 6374 | 이 혜 원 |
| 138945 | 조 은 비 | 139004 | 김 형 석 | 139063 | 정 연 빙 | 139122 | 박 정 현 | 6316 | 박 정 윤 | 6375 | 강 유 섭 |
| 138946 | 심 병 현 | 139005 | 엄 찬 호 | 139064 | 박 성 준 | 139123 | 차 승 란 | 6317 | 정 유 나 | 6376 | 김 상 훈 |
| 138947 | 김 다 빙 | 139006 | 이 정 환 | 139065 | 장 영 호 | 139124 | 김 시 준 | 6318 | 김 은 창 | 6377 | 박 정 우 |
| 138948 | 이 하 영 | 139007 | 이 종 인 | 139066 | 명 유 진 | 139125 | 김 상 현 | 6319 | 이 호 림 | 6378 | 장 태 율 |
| 138949 | 김 어 진 | 139008 | 전 경 배 | 139067 | 서 준 민 | 139126 | 오 승 춘 | 6320 | 윤 소 담 | 6379 | 김 제 호 |
| 138950 | 정 재 훈 | 139009 | 김 범 수 | 139068 | 윤 상 근 | 139127 | 황 석 영 | 6321 | 박 지 율 | 6380 | 이 승 준 |
| 138951 | 강 민 수 | 139010 | 김 가 빙 | 139069 | 손 신 | 139128 | 하 은 빙 | 6322 | 김 승 민 | 6381 | 김 병 찬 |
| 138952 | 서 정 민 | 139011 | 박 나 영 | 139070 | 박 초 왕 | 139129 | 이 현 호 | 6323 | 오 지 원 | 6382 | 최 무 건 |
| 138953 | 정 지 민 | 139012 | 손 윤 미 | 139071 | 고 규 민 | 139130 | 박 동 훈 | 6324 | 서 보 건 | 6383 | 송 시 윤 |
| 138954 | 박 종 인 | 139013 | 심 다 빙 | 139072 | 최 태 근 | 139131 | 최 은 혁 | 6325 | 지 예 준 | 6384 | 박 민 서 |
| 138955 | 황 희 준 | 139014 | 안 재 현 | 139073 | 이 제 훈 | 139132 | 박 승 범 | 6326 | 최 명 근 | 6385 | 박 지 우 |
| 138956 | 나 도 형 | 139015 | 연 재 희 | 139074 | 천 세 화 | 139133 | 김 종 관 | 6327 | 문 정 원 | 6386 | 박 현 승 |
| 138957 | 김 정 흐 | 139016 | 이 나 경 | 139075 | 배 승 빙 | 139134 | 손 현 승 | 6328 | 김 민 철 | 6387 | 박 혜 진 |
| 138958 | 최 명 규 | 139017 | 정 예 은 | 139076 | 송 채 이 | 139135 | 1049 | 6329 | 김 범 수 | 6388 | 이 호 석 |
| 138959 | 김 송 조 | 139018 | 황 보 영 | 139077 | 이 예 슬 | 139136 | 1050 | 6330 | 차 재 육 | 6389 | 허 종 우 |
| 138960 | 김 지 환 | 139019 | 박 하 연 | 139078 | 구 성 민 | 139137 | 6331 | 6331 | 김 병 진 | 6390 | 김 재 헌 |
| 138961 | 채 희 관 | 139020 | 김 근 영 | 139079 | 서 우 정 | 139138 | 6332 | 6332 | 이 환 희 | 6391 | 윤 건 우 |
| 138962 | 채 기 수 | 139021 | 차 아 리 | 139080 | 심 초 원 | 139139 | 6333 | 6333 | 한 유 호 | 6393 | 이 수 혁 |
| 138963 | 정 병 일 | 139022 | 김 강 산 | 139081 | 유 성 빙 | 139140 | 6334 | 6334 | 이 창 희 | 6394 | 오 제 석 |
| 138964 | 한 승 우 | 139023 | 박 혜 진 | 139082 | 김 혜 원 | 139141 | 6335 | 6335 | 문 준 서 | 6395 | 정 민 혁 |
| 138965 | 김 성 진 | 139024 | 김 태 호 | 139083 | 김 근 만 | 139142 | 6277 | 6277 | 송 도 겸 | 6396 | 정 주 희 |
| 138966 | 배 윤 아 | 139025 | 김 진 혁 | 139084 | 이 장 우 | 139143 | 6278 | 6278 | 정 주 희 | 6397 | 오 승 원 |
| 138967 | 조 정 아 | 139026 | 오 재 흥 | 139085 | 김 병 권 | 139144 | 6279 | 6279 | 이 정 호 | 6398 | 정 수 민 |
| 138968 | 조 성 주 | 139027 | 강 태 빙 | 139086 | 손 예 립 | 139145 | 6280 | 6280 | 오 태 산 | 6399 | 윤 서 진 |
| 138969 | 박 수 완 | 139028 | 이 성 민 | 139087 | 동 은 흥 | 139146 | 6281 | 6281 | 김 태 준 | 6400 | 권 준 |
| 138970 | 박 태 민 | 139029 | 김 성 한 | 139088 | 이 현 준 | 139147 | 6282 | 6282 | 권 윤 | 6401 | 김 선 우 |
| 138971 | 양 앙 혁 | 139030 | 송 현 민 | 139089 | 박 주 희 | 139148 | 6283 | 6283 | 박 활 희 | 6402 | 안 시 후 |

2020년 제2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0년 5월 28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913 | 함 병 주 | 138972 | 김 형 주 | 139031 | 신 재 영 | 139090 | 최 태 준 | 6284 | 전 윤 재 | 6343 | 한 찬 희 |

<tbl_r cells="12" ix="2" maxcspan="1" maxrspan="1

| | | | | | | | | | | | |
|--------|-----|--------|-----|--------|-----|--------|-----|------|-----|------|-----|
| 139422 | 이기성 | 139483 | 우탁군 | 139544 | 전재호 | 139605 | 도성민 | 6416 | 이서현 | 6478 | 최원혁 |
| 139423 | 백인서 | 139484 | 이현빈 | 139545 | 황상식 | 139606 | 정상옥 | 6417 | 이준호 | 6479 | 조연우 |
| 139424 | 윤선우 | 139485 | 김태현 | 139546 | 이창욱 | 139607 | 이동희 | 6418 | 장재영 | 6480 | 장세윤 |
| 139425 | 황인용 | 139486 | 김진영 | 139547 | 정우진 | 139608 | 김지훈 | 6419 | 전대현 | 6481 | 이찬규 |
| 139426 | 고한비 | 139487 | 이혁재 | 139548 | 이영보 | 139609 | 박예린 | 6420 | 김송주 | 6482 | 이은지 |
| 139427 | 나한별 | 139488 | 최희주 | 139549 | 이지관 | 139610 | 이동훈 | 6421 | 장재혁 | 6483 | 유효연 |
| 139428 | 조윤서 | 139489 | 정문경 | 139550 | 김청환 | 139611 | 이재현 | 6422 | 임주형 | 6484 | 김정빈 |
| 139429 | 김소영 | 139490 | 이미성 | 139551 | 손종민 | 139612 | 김지훈 | 6423 | 이준원 | 6485 | 유지연 |
| 139430 | 추은지 | 139491 | 최정아 | 139552 | 정한솔 | 139613 | 김제휘 | 6424 | 김요한 | 6486 | 김승기 |
| 139431 | 권태혁 | 139492 | 이승이 | 139553 | 윤승환 | 139614 | 김성준 | 6425 | 백주호 | 6487 | 김은기 |
| 139432 | 김상현 | 139493 | 정현호 | 139554 | 신주원 | 139615 | 김봉중 | 6426 | 이태우 | 6488 | 염수진 |
| 139433 | 김병준 | 139494 | 최인섭 | 139555 | 권민웅 | 139616 | 박정훈 | 6427 | 김찬영 | 6489 | 문려원 |
| 139434 | 김해진 | 139495 | 이진영 | 139556 | 임영석 | 139617 | 장민성 | 6428 | 김민준 | 6490 | 김재욱 |
| 139435 | 김재원 | 139496 | 강세윤 | 139557 | 김보건 | 139618 | 이태현 | 6429 | 박현민 | 6491 | 황석현 |
| 139436 | 목종성 | 139497 | 김기태 | 139558 | 김보민 | 139619 | 김민기 | 6430 | 변창연 | 6492 | 이서연 |
| 139437 | 박지은 | 139498 | 유은주 | 139559 | 최민석 | 139620 | 장홍규 | 6431 | 이민준 | 6493 | 심서완 |
| 139438 | 박지현 | 139499 | 유현수 | 139560 | 조윤성 | 139621 | 최영도 | 6432 | 송한결 | 6494 | 박용준 |
| 139439 | 박지훈 | 139500 | 이민영 | 139561 | 장준서 | 139622 | 홍수목 | 6433 | 문규동 | 6495 | 송영규 |
| 139440 | 신동근 | 139501 | 강효빈 | 139562 | 정장미 | 139623 | 윤호경 | 6434 | 송용원 | 6496 | 한강민 |
| 139441 | 신민규 | 139502 | 김민주 | 139563 | 곽재열 | 139624 | 오윤정 | 6435 | 차민규 | 6497 | 오예령 |
| 139442 | 윤주혁 | 139503 | 이승용 | 139564 | 김민지 | 139625 | 현승훈 | 6436 | 박연수 | 6498 | 오송현 |
| 139443 | 이병기 | 139504 | 유민상 | 139565 | 권석우 | 139626 | 고지완 | 6437 | 장현준 | 6499 | 유현도 |
| 139444 | 정한빈 | 139505 | 조성재 | 139566 | 이경주 | 139627 | 주대웅 | 6438 | 김현수 | 6500 | 김민욱 |
| 139445 | 조은비 | 139506 | 김종민 | 139567 | 오해성 | 139628 | 부준의 | 6439 | 이해찬 | 6501 | 하우정 |
| 139446 | 주민엽 | 139507 | 피성은 | 139568 | 정세현 | 139629 | 김혜민 | 6440 | 김동균 | 6502 | 조재희 |
| 139447 | 최예람 | 139508 | 이진아 | 139569 | 최주경 | 139630 | 김창강 | 6441 | 김능환 | 6503 | 박현성 |
| 139448 | 석민채 | 139509 | 이성도 | 139570 | 권준현 | 139631 | 최승민 | 6442 | 이동현 | 6504 | 김가연 |
| 139449 | 김유진 | 139510 | 이인수 | 139571 | 운다연 | 139632 | 최혜원 | 6443 | 김민규 | 6505 | 백범준 |
| 139450 | 변희정 | 139511 | 김용환 | 139572 | 이재희 | | | 6444 | 진영호 | 6506 | 이진서 |
| 139451 | 심하선 | 139512 | 김학구 | 139573 | 이승훈 | | | 6445 | 박준민 | 6507 | 이재홍 |
| 139452 | 이슬기 | 139513 | 김세인 | 139574 | 정진우 | | | 6446 | 이동원 | 6508 | 김민성 |
| 139453 | 서종한 | 139514 | 곽현준 | 139575 | 신용민 | | | 6447 | 문건희 | 6509 | 김예린 |
| 139454 | 이전형 | 139515 | 정재승 | 139576 | 이호준 | | | 6448 | 김정수 | 6510 | 권채원 |
| 139455 | 배명환 | 139516 | 정유신 | 139577 | 이솔비 | | | 6449 | 김광민 | 6511 | 김예찬 |
| 139456 | 이도현 | 139517 | 안민서 | 139578 | 박채연 | | | 6450 | 김민석 | 6512 | 윤예준 |
| 139457 | 김선웅 | 139518 | 고명재 | 139579 | 정보민 | | | 6451 | 박정빈 | 6513 | 한민오 |
| 139458 | 이지용 | 139519 | 홍진수 | 139580 | 윤지원 | | | 6452 | 전시형 | 6514 | 황성준 |
| 139459 | 강도형 | 139520 | 최유나 | 139581 | 이영재 | | | 6453 | 김경안 | 6515 | 차민우 |
| 139460 | 유영훈 | 139521 | 은태경 | 139582 | 양우정 | | | 6454 | 김주연 | 6516 | 주도훈 |
| 139461 | 김정웅 | 139522 | 최연우 | 139583 | 이유정 | | | 6455 | 박준형 | 6517 | 조효준 |
| 139462 | 김유빈 | 139523 | 김현빈 | 139584 | 정민재 | | | 6456 | 안세종 | 6518 | 권기민 |
| 139463 | 김은서 | 139524 | 윤준 | 139585 | 정동현 | | | 6457 | 김세이 | 6519 | 임채민 |
| 139464 | 박건우 | 139525 | 최진수 | 139586 | 최의준 | | | 6458 | 최현우 | 6520 | 이재경 |
| 139465 | 함채연 | 139526 | 박채민 | 139587 | 여용기 | | | 6459 | 김도훈 | 6521 | 김도연 |
| 139466 | 손현서 | 139527 | 최성국 | 139588 | 김상훈 | | | 6460 | 이지호 | 6522 | 이아은 |
| 139467 | 정혜정 | 139528 | 이현철 | 139589 | 한가은 | | | 6461 | 김동규 | 6523 | 심은진 |
| 139468 | 김효식 | 139529 | 안호연 | 139590 | 김승민 | | | 6462 | 김동현 | 6524 | 김서현 |
| 139469 | 김태희 | 139530 | 조재엽 | 139591 | 김청랑 | | | 6464 | 노종학 | 6525 | 장연석 |
| 139470 | 이지혜 | 139531 | 이제훈 | 139592 | 안지훈 | | | 6465 | 노태화 | 6526 | 이재희 |
| 139471 | 정준엽 | 139532 | 김은지 | 139593 | 송재영 | | | 6466 | 조한슬 | 6527 | 최준영 |
| 139472 | 권은혜 | 139533 | 하주엽 | 139594 | 배진형 | | | 6467 | 박건후 | 6528 | 권현웅 |
| 139473 | 정병훈 | 139534 | 변유리 | 139595 | 김영수 | | | 6468 | 김수환 | 6529 | 고은찬 |
| 139474 | 백상훈 | 139535 | 김동화 | 139596 | 엄성민 | | | 6469 | 김미경 | 6530 | 최민지 |
| 139475 | 김서영 | 139536 | 김진 | 139597 | 신윤재 | | | 6470 | 임선우 | 6531 | 홍지운 |
| 139476 | 정다원 | 139537 | 허민 | 139598 | 이찬원 | | | 6471 | 서지웅 | 6532 | 고영웅 |
| 139477 | 서지민 | 139538 | 홍정우 | 139599 | 변재윤 | | | 6472 | 조재우 | 6533 | 오주호 |
| 139478 | 유민상 | 139539 | 이재호 | 139600 | 이지연 | | | 6473 | 최건 | 6534 | 오윤형 |
| 139479 | 진화량 | 139540 | 박효빈 | 139601 | 이송은 | | | 6474 | 정희성 | 6535 | 박하늘 |
| 139480 | 오현아 | 139541 | 조희랑 | 139602 | 최수민 | | | 6475 | 박예석 | 6536 | 조호재 |
| 139481 | 윤동해 | 139542 | 임효원 | 139603 | 장윤아 | | | 6476 | 정예준 | 6537 | 이정후 |
| 139482 | 김민욱 | 139543 | 이호석 | 139604 | 김가영 | | | 6477 | 전현수 | 6538 | 현승호 |



ADIDAS JUDO

아디다스 유도 공식 대리점
야와라 스포츠
031.455.0808

아디다스 컴뱃스포츠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합니다.

JEWOO INTERNATIONAL CO.,LTD.
서울 서초구 명동로 65 일흥스포타운 4층



지금 하나원큐로 갈아탈 때

원큐에 돈이 되는 하나원큐 모바일대출

잔액은 모으고! 대출은 갈아타고! 하나를 알면 열을 빈다

하나원큐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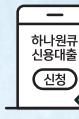


STEP 1
하나 원큐
앱 실행



STEP 2

전체 메뉴 > 대출 > 대출상품
> 하나원큐신용대출 상품 확인



STEP 3
한도 조회 및
신청하기



STEP 4
대출한도 확인하고,
[갈아타기 금리 및 한도 조회] 클릭!

유도는 하나다! 하나는 유도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한도 기준으로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결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등 자세한 설명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결 2020-광고-2113호(2020.04.28) CC브랜드 200424-0129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